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8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3월 6일) 2022년 4월 6일 수요일



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로 추대된 중봉 성파 대종사가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전달받은 법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종정 성파 대종사, '사회 기여·초발심' 화두 던지다

조계종 3월 30일 제15대 종정예하 추대법회

성파 종정예하 준비한 법어대신
즉석에서 생활법문으로 法 전해
"전통계승·문화창달 불교 역할
항상 초발심으로 인생 살아가라"
문재인 대통령 등 3000명 운집
각계각층서 영상메시지로 축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15대 종정에 중봉 성파 대종사가 공식 추대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10년 만에 새로운 조계종 종정예하가 추대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원욱 국회정각회장, 주호영 정각회 명예회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존경의 예를 올렸다.

조계종 원로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는 추대사를 통해 새로운 종정예하를 맞이하며 종단이 발전의 길로 나아가길 서원했다. 수봉 세민 대종사는 "성파 종정 시대를 맞아 종단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으로 또 한 번의 중흥을 이룩해야 할 것이며, 종정예하의 덕화로 불일(佛日)은 더욱 밝아지고 곳곳에서 도업(道業)이 넘칠 것"이라며 "갈등과 대립으로 갈라진 물줄기를 한곳으로 흐르게 하고 상처난 사람의 마음에 진실의 대비(大悲)를 내려달라"고 기원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봉행사에서 종정예하를 호지하며 불교가 세상을 밝힐 등불이 될 것을 다짐했다. 원행 스님은 "종단의 최고 어른이신 종정 예하를 새롭게 모시게 됐다. 오늘을 계기로 신수봉행(信受奉行)을 서원하는 모두는 말과 행을 함께하는 수행과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을 실현해오신 종정예하의 덕화를 본받아 진일보할 것"이라며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불교의 중흥과 국민들의 행복, 나라의 평화가 실현되는 디딤돌이 되기를 성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중봉 성파 대종사는 3월 26일 임기 시작과 함께 이날 추대법회에서 처음으로 대중법문을 설했다. 미리 준비된 법문이 있었지만 법석에 오른 대종사는 그 자리에서 새로 법(法)을 내렸다. 대중들이 알기 어려운 조사 어록 등은 인용하지 않고도 쉽고 간결하며 알기 쉽게 법을 전했다.

원로회의 부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와 원행 스님이 각각 봉정한 불자와 법장을 받은 중봉 성파 대종사의 일성은 '호국불교'와 '초발심'이었다.

대종사는 "언필칭(言必稱) 한국불교를 '호국불교'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호국불교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예로부터 불교는 토목, 건축, 조각, 미술 등 모든 생활문화에서 민족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우리 불자들은 문화 창달의 노력을 기울여야 국태민안의 종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산에서 염불과 참선을 하지만 결국 국가와 사회에 기여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지 않으려야 가지 않을 수 없는 인생길, 나이가 70~80세가 되면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다고 생각한다. 이를 다 잊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길을 갔으면 한다. 이를 안다면, 이것이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다"며 "초발심으로 돌아가자. 새롭게 출발한다면 우리 마음, 가정, 사회, 국가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했다.

또한, 중봉 성파 대종사는 불자들에게 사회 화합의 주체가 될 것을 강조했다. 대종사는 "계절은 봄이 됐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얼어붙어 꽃을 못 피우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불자들은 사회와 세계의 얼어붙은 마음들을 따스한 화합의 기운으로 품어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추대법회에서는 불교계 안팎의 축하메시지도 이어졌다. 법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한 한국불교에 감사함을 전하며 종정예하의 가르침에 따라 사회가 화합으로 나아가길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불교는 민중의 삶과 함께 했다. 코로나19의 위협에도 우리 불교는 이웃을 생각하고 동체대비를 실천하며 희망의 등불을 밝혔다"면서 "한국불교는 천년을 이어온 연등회를 취소하는 용단을 보여줬으며, 기부와 나눔 봉사로 지친 국민과 의료진의 손을 잡아줬다. 오미크론의 위협에도 한국불교가 우리 국민과 사회에 용기와 힘을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종정예하는 차별없이 배려하는 상불경보살의 정신과 선한 마음을 강조하셨다. 그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헌사를 통해 종정예하의 교시를 따라 정진할 것을 밝혔다. 스님은 "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추대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부대중은 무장무애(無障無碍)하고 환희원만(歡喜圓滿)하여 종정예하께서 내려주신 교시를 따라 정진해 나가겠다"며 "우리 사부대중 모두는 한사람의 수행자, 한사람의 원력보살이 되어 대자비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도 헌사를 통해 "조계종의 신도대중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긍정적 안목으로 부처님과 같이 살아가겠다"며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주인공은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저희들임을 굳게 새겨 정진해 나가겠다"고 서원했다.

〈관련 특집 2·3면〉



법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

봉행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3~14대 종정
팔공총림동화사 방장 진제 법원
회주 임담 의현
주지 능종 종

동화사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1(도학동 35) / www.donghwasa.net
TEL : 053)980-7900 / FAX : 053)985-4405



“준비한 것 잊었다” 즉석법문, 대중들 박수

조계종 제15대 종정 추대 법회 이모저모

간결 · 쉬운 취임법어 ‘눈길’
‘無遮의 리더십’ 세간 주목
대통령 추대법회 참석 처음
BBS · BTN, 유튜브 생중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은 3월 30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제15대 종정예하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3월 30일 조계사에서 열린 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추대법회가 성료했다. 10년 만에 새로운 종정을 모시는 자리인 만큼 여법하게 봉행됐으며, 법회를 통해 중봉성파 대종사는 조계종 종정예하로 공식 추대됐다.

즉석법문에 대중들 박수 갈채

이날 법회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것은 새로운 종정 스님의 취임법어였다. 성파 종정예하의 법어는 법회를 앞두고 공개됐고, 행사 자료집에도 그대로 실렸다. 이 법어는 새 종정예하의 육성으로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불자와 법장을 봉정받은 성파 대종사는 “특별한 법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통도사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싹 다 잊어버렸다”며 즉석에서 법어를 설했다. 대종사의 법어는 여지껏 알고 있는 큰스님들의 법어와는 달랐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조사 어록과 공안들을 인용하지 않았고, 일상적 언어로 간결하고 쉽게 법을 전했다.

대종사는 법어에서 ‘호국불교’와 ‘초발심’을 화두로 꺼냈다. 호국불교는 총과 칼을 드는 게 아닌 ‘이 시대 불교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화두였다. ‘초발심’은 ‘새롭게 시작하자’는 대종사의 당부였다.

대종사의 법어에 대중들은 세 차례에 걸쳐 박수로 호응했다. 특히 “봄이와 꽃을 피웠지만 인간들의 마음은 왜 꽃을 못 피우는지. 이 세계의 얼어붙은 마음들을 따스하게 화합하는 기분으로 굴려서 웃음꽃이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불자의 임무와 책임”, “초발심으로 돌아가자. 이때까지 있던 것들을 싹 지워버리고 새로 전부 출발하면 전부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법어에 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편안하게 이야기하듯 전한 법어에 세간은 중봉성파 대종사의 ‘부드러운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다. 근엄하고 다가서기 어려운 큰스님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린 ‘무차(無遮)의 선지식’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대통령 참석 최초…엄중 경호

이날 추대법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참석했다. 종정예하 추대법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추대 법회에 앞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성파 종정예하,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불교계 최고 어른인 종정예하 추대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정 예하께서 불교계의 화합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대통합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직에서 퇴임하면 통도사 옆으로 가게 되어 가까운 이웃이 되는데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성파 종정예하는 ‘백리 길을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반으로 여기며, 남은 십 리가 중요하다’는 뜻의 ‘행백리자반구십리(行百里子半九十里)’를 강조하며, “문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내외가 직접 조계사 법회에 참석한 만큼, 검문검색이 강화됐다. 스님과 신도, 취재진들이 법회 장소로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생중계 · 영상 메시지 ‘눈길’

법회 중에는 여야 대표부터 정각회장,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각계각층의 영상 축하메시지가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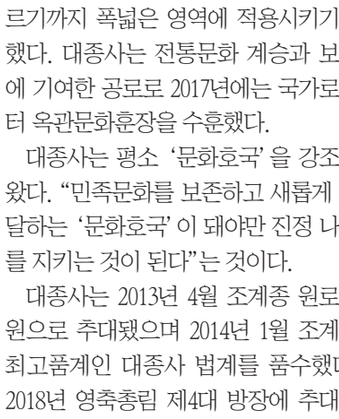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중봉성파 대종사께서는 이판과 사판을 넘나드는 대자유인이자 자애로운 스승”이라고 찬탄했으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처님의 크신 자비심과 중봉 성파 대종사의 깊은 공덕으로 대한민국을 더욱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깃들어있는 불성을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화합의 불국토가 이 땅에 현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은석초등학교 · 동대부중 · 동대부고 · 동대부여고 학생들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들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불교를 만들어주세요”, “세상을 비추는 소중한 불자가 되겠습니다”라며 성파 종정예하 추대를 축하했다.

BBS불교방송과 BTN불교TV에서는 추대법회 현장을 생중계했다. 두 방송국 모두 유튜브를 통해서도 법회 현장을 전했으며, 1만 4~6000여 명이 시청하며 종정 추대를 축하했다. 시청자들은 채팅을 통해 축하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禪農 · 禪藝一致 보인 선지식
전통계승 통한 ‘문화호국’ 강조

중봉성파 종정예하는



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선농일치(禪農一致) · 선예일치(禪藝一致)를 보여준 선지식이다.

1960년 10월 15일 통도사 노천 월하 화상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1970년 4월 7일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1년 1월 15일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며 당시 통도사 강주인 운조 홍법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았고 이후 통도사 강주를 역임했다.

1998년 봉암사 태고선원 수선안거 이래 상원사 청량선원을 거쳐 2000년 4월에 통도사 서운암에 무위선원을 열고 총 26안거를 성만했다. 2002년 2월 당시 영축총림 방장 노천월하 대종사로부터 ‘人人各持自燈火 豈待日月尋前路’의 전법게 및 ‘중봉(中峰)’이라는 법호를 함께 받았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교육 및 문화활동에 꾸준히 힘을 기울여 왔다. 1980년 2월 당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던 학교법인 원효학원 해동 중고등학교의 이사장을 역임했다. 1988년 5월 원효학원이 범어사와 분립되자 학교법인 영축학원을 설립해 38년 간 종립학교 발전에 이바지했다. 성파 시조문학상 및 전국 시조백일장을 제정하여 한국 시조문학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영축전통문화연구원 및 한국전통문화연구원을 설립해 통도사 및 한국문화발전에도 기여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교무부장, 규정부장으로서 종단 발전에도 일임을 담당했으며, 1981년 3월에는 통도사 제20대 주지로 취임해 불교계 최초로 성보박물관을 건립하기도 했다. 통도사 주지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모든 소임을 내려놓고 통도사 서운암 감원으로 주석하며 수행에만 온전히 매진했다.

2000년 4월 서운암에 무위선원을 개원한 이후에는 선농일치 정신을 선양하며 사라져 가던 통도사 차밭을 재건하고 황무지에 야생초 및 감나무 밭을 일궜다.

사찰이 지닌 고유한 문화와 예술을 발굴하고 이를 선의 정신과 접목한 선예일치를 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겸전(兼全)했다. 1991년부터 2012년 4월까지 21년에 걸쳐 도자판을 구워 제작한 16만 도자대장경을 조성하고 장경각을 건립하여 불사한 대장경을 모셨으며, 천연염색 및 새로운 옻칠기법을 개발해 사찰단청과 건축, 도자기 및 그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 적용시키기도 했다. 대종사는 전통문화 계승과 보존에 기여한 공로로 2017년에는 국가로부터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대종사는 평소 ‘문화호국’을 강조해 왔다.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새롭게 창달하는 ‘문화호국’이 돼야만 진정 나라를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대종사는 2013년 4월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됐으며 2014년 1월 조계종 최고품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2018년 영축총림 제4대 방장에 추대됐으며, 2021년 12월 13일 조계종 원로회의서 만장일치로 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됐다.

“상불경 보살정신·善心 강조한 가르침 따라 화합 사회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 축하 메시지



오늘, 중봉성파 대종사께서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되셨습니다. 두 손 모아 축하드립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봄, 조계사 곳곳에 봉축 도량등의 물결이 넘실대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대승의 보살정신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불자 여러분과 내외 귀빈들께 감사드리며,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원로 고승대덕 스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저는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종정 예하를 여러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큰 가르침을 받았고, 정신을 각성시키는 맑고 향기로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철마다 들꽃이 만발하고, 수천 개의 장독마다 역사와 전통이 담겨있던 서운암도 눈에 선합니다.

부처님은 행동과 지혜는 수레의 두 바퀴, 새의 두 날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정예하께서는 일과 수행, 삶과 예술, 자연과 문화가 결코 둘이 아니라는 선농일치를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산야의 햇살과 바람으로 전통장을 담그셨고, 우리 흙으로 도자삼천불과 통일을 염원하는 16만 도자대장경을 빚어내셨습니다.

30여 종의 우리 꽃과 식물로 천연염색을 복원하고, 옻칠기법을 개발해 불화와 민화를 새롭게 그리셨습니다. 이 모두가 불교문화와 전통문화의 정수이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불교문화와 정신문화를 길러온 종정 예하의 선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큽니다. 종정 예하와 조계종이 품어온 정신과 예술의 향기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불교는 긴 세월 민족의 삶과 함께 해왔습니다. 불교가 실천해온 자비와 상생의 정신은 우리 국민의 심성에 녹아 이웃을 생각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불교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도 동체대비의 정신을 실천하며 국민들께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연등회를 취소하는 고귀한 용단을 내렸고, 아낌없는 기부와 나눔, 봉사로 지친 국민과 의료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국민들 역시 이웃을 생각하며 자신의 일상을 양보했고, 모두의 자유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내했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계신 국민들께 불교가 변함없는 용기와 힘을 주리라 믿습니다.

종정 예하께서는 모두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불경 보살’의 정신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종정 예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덕화로 道業 넘칠 것”

추대사 수봉 세민 대종사



오늘 이 자리는 종단의 법통을 계승하고 최고의 권위와 존엄을 갖춘 새 종정예하를 모시는 자리입니다. 대방무외(大方無外)한 선지(禪旨)와 대기대용(大機大用)을 갖춘 성파 대종사를 새 종정으로 모시어 추대식을 갖는 성스러운 법석입니다.

오랫동안 영취산 통도사에 머물면서 일념정진으로 내심자증(內心自證)을 이루어 번뇌를 보리의 대용으로 바꾸고 허철영적(虛徹靈寂)한 마음 바탕에서 무생의 면목을 깨닫고 인천(人天)의 안목을 연 눈밝은 선지식입니다.

수행가풍은 육조혜능의 현의(玄義)를 구현하고 임제선풍을 진작하며 백장청규를 실천하면서 일상생활을 통해 선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루일과는 화두참구와 예술창작으로 이어지고 자기명근(自己命根)을 밝히는 정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속에 팔만대장경을 도자기에 새겨 원만성취하여 대장각에 모신 원력보살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라에 눈 밝은 이가 있으면 그 나라는 윤택해지고 집안에 선(善)이 있으면 그 가문이 비옥해진다고 했습니다.

성파 종정시대를 맞아 종단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으로 또 한 번의 중흥을 이룩해야 할 것이며, 종정예하의 덕화로 불일(佛日)은 더욱 밝아지고 곳곳에서 도업(道業)이 넘칠 것입니다.

사부대중과 함께 진심으로 경하(敬賀)드립니다.

“종정예하 원력따라 문화수호”

봉행사 총무원장 원행 스님



오늘 종도들은 종단의 최고 어른이신 종정 예하를 새롭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단의 자존과 도약의 소중한 전기를 맞이하는 참으로 경사스럽고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신수봉행(信受奉行)을 서원하는 모두는 말과 행을 함께하는 수행과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을 실현해오신 종정 예하의 덕화를 본받아 진일보할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갈등과 대립 그리고 위기로 물들어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가 재현되고,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이 창궐하여 삶은 피폐해지고 평온한 일상의 즐거움도 찾기 어렵습니다. 오롯이 인간의 이기심이 빚어낸 참극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 성냄과 증오심 그리고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중생들의 번뇌를 온전히 끊어내어야 합니다. 늘 올바른 규율로 지계는 청정해야하고 화합을 통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종정 예하의 교시는 모든 중생의 진안을 밝히는 지남입니다.

중생 교화에 더욱 큰 발원이 있으신 종정 예하의 원력에 따라 종단은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나아가 전법 교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불교가 세상에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종단의 막중한 책무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이에 사부대중은 일심일념으로 삼보를 호지하고 올바른 공동체를 위해 정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종정 예하의 정진력과 지혜의 덕화를 호지하여 무량한 등불로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다함께 정진합시다.

“종정 교시 실천하겠습니다”

헌사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추대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부대중은 무장무애(無障無碍)하고 환희원만(歡喜圓滿)하여 종정예하께서 내려주신 교시(敎示)를 따라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常要淸規, 必須和睦, 普利群生, 爲報佛恩 항상 청규를 따르고 반드시 화목함을 지켜서 뭇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큰 서원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종정예하께서는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한 마음의 병으로 많은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일러 주셨습니다. 스승께서는 이미 한평생 수행과 문화, 생명살림과 화합의 길을 온 몸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부대중 모두는 한사람의 수행자, 한사람의 원력보살이 되어 대자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 거룩한 법석에 함께 한 공덕으로 우리 동참 대중은 보현의 행원을 오롯이 성취해 낼 것입니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온 중생을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내려는 이 정진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불국토 만드는 주인공될 것”

헌사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거룩하신 부처님과 크고 밝은 지혜의 가르침과 수행종가를 이끌고 계신 승가에 귀의합니다.

오늘 우리 사부대중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일어나 함께 춤추는 기쁜 법석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님을 모시는 즐거운 축제의 장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화엄경을 인용하시어 “심여공화사(心如工畵師)하니 능화제세간(能畵諸世間)이라하셨습니다.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붓과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을 그려낸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접하고 어느 정도의 신심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의 신도대중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긍정적 안목으로 부처님과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생명과 평화, 문화와 전통을 일구는 원력보살로 살아 저희들의 공업으로 세상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주인공은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저희들임을 굳게 새겨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계종은 3월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제15대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중봉 성파 대종사가 전달 받은 불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佛日이 밝으니 뭇생명에 大悲가 내리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15대 종정 중봉성파 대종사의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불자들에게 사회 화합의 주체가 될 것을 강조하며, "세계의 얼어붙은 마음들을 따스한 화합의 기운으로 품어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된 이날 추대법회 현장의 모습을 지상 화보로 전한다.

글=박재완 기자 · 사진=공동취재단



추대법회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진은 참석대중이 삼귀의를 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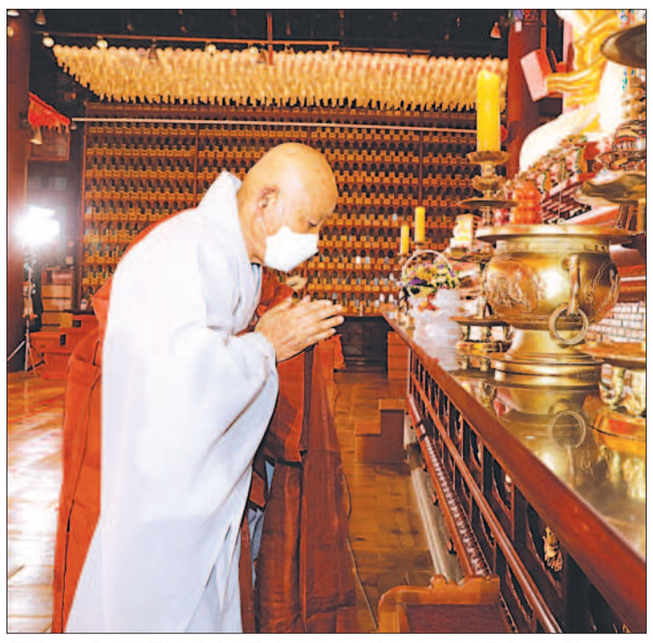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운집해 제15대 종정 중봉성파 대종사의 종정 추대를 축하했다.



법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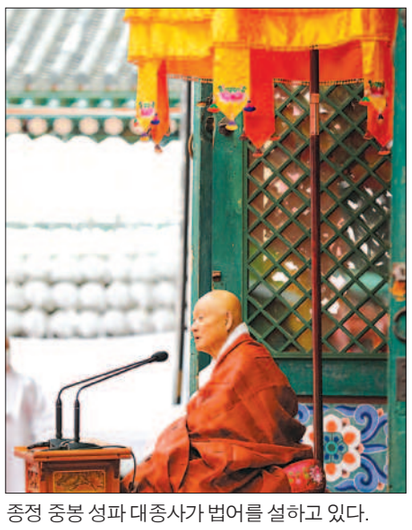
중봉 성파 대종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운집한 3000여 불자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법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종정으로 추대된 중봉 성파 대종사가 불단에 헌향하고 삼배를 올리고 있다.



제15대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법어를 설하고 있다.



추대법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젠 말사도 '도심 직영포교당' 건립 가능

조계종 중앙종회 제224차 임시회

사찰법 · 중앙종회법 개정안 가결
종회 내 문화분과위원회 신설키로
청년예비출가제 신설안 결국 철회
원로의원에 원각 · 도영 스님 추천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8~29일 제224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신성민 · 송지희 기자

앞으로 교구본사가 아닌 말사도 도심지역 및 신도시에 포교거점 역할을 담당할 직영포교당을 건립,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문화포교 및 문화재 보존관리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제18대 중앙종회부터 문화분과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3월 28~29일 제224차 임시회에서 종법개정안을 다룬 결과, 도심사찰의 직영포교당 운영을 골자로 한 사찰법 개정안과 문화분과 신설을 담은 중앙종회법 등을 가결했다.

특히 사찰법은 직영포교당 건립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심포교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찰법 개정안은 교구본사나 공찰에서 도심포교 등의 목적으로 직영포교당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직영포교당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구본사나 말사(공찰)가 창건할 수 있으며, 직접 운영하고 재산권은 관할 사찰이 소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교구본사나 말사 주지는 직영포교당의 관리인을 위촉해 위임관리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영포교당은 교구본사나 말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그 재산권은 관할 사찰이 소유하며 도심지역 등 동일 경내 이외에 위치한 사찰을 일컫는다. 이날 임시회에서 의원 스님들은 개정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분담금 책정 시 이중부과 우려 및 직영포교당 관리인의 귀책문제 발생시 책임 소지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개정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직영포교당 건립 운영의 법적 근거를 형성한 후 재점검하는 방향으로 가결키로 했다.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문화분과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다.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문화 포교의 중요성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문화 분야에서의 전문성 및 범위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사회분과위원회 소관 업무 중 문화 관련 분야를 독립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문화분과위원회 총무원 문화부 소관에 관한 사항, 불교중앙박물관 및 성보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성보(불교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불교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항 등으로 세부 사항을 담은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 경우 기존 사회분과에 포함됐던 방송언론에 관한 사항과 불교신문사에 관한 사항은 문화부 소관으로, 문화분과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승려법 개정안은 승려 개인 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위한 유언장 제출 시기를 기존 사미(니)에서 비구(니)계 수지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원 스님들은 유언장 제도가 전체 승려에게 의무로 제출토록 돼 있지만, 사미(니)의 경우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견덕(계덕) 법계를 품수받은 때부터 유언장을 제출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종회의 쟁점 사안으로 주목됐던 종립학교 예비출가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청소년출가 ·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격론 끝에 철회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8일 해당안에 대한 격론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휴회, 다음날 속개해 논의를 이어갔다. 해당안은 출가장려의 일환에서 종립학교 입학생들을 출가 전제로 모집해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기존 승가교육 체계와의 충돌 및 현실성 여부 등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정범 스님은 속개종회에서 제25조를 입학 시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졸업 후 비구 · 비구니계를 수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특혜조항이 될 수 있는 제28조 2항(청년예비출가자 군승 전역시 말사 우선 임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에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다.

담당 중앙종무기관인 교육원에서도 현 개정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교육부장 서봉 스님은 "이건 새로운 출가방식이다. 사찰 승가대학 등에도 충격이 있다. 관련기관 공청회 등을 진행해 바람직한 안을 도출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현행 개정안은 사안이 심각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정범 스님은 개정안을 철회하고, 6월에 종회에 새로운 특별법을 제출키로 했다. 또한 정범 스님은 출가장려특위 위원장직에 대한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직할교구 이외의 사찰이 전각의 신축 · 이전 · 철거시,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현행법상 총무원장이 가진 승인 권한을 교구본사로 이양하는 안건 또한 첨예한 논의 끝에 차기 회기로 이월됐다.

해당 개정안은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것으로, 다수 스님들이 절차상 간소화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현행규정 자체가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지적을 비롯해 이미 미승인 불사를 진행한 사찰에 대한 징계 및 관리 등 문제로 치열한 논의가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스님은 "사찰 불사시 총무원장 승인을 요하는 현행법의 취지는 규제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스님들이 잘하고자 불사를 하는 경우겠지만, 몇 사례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돼 왔다. 총무원장 승인 절차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행 스님 발언 직후 개정안을 발의한 종헌특위는 긴급회의를 열고, 해당안을 차기로 이월한 후 집행부와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중앙종회 등 3자 논의 결과 다시 안건을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날 임시회에서는 새 원로의원으로 방장 원각 스님과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이 추천됐다. 또 초심호계원장 도신 스님을 비롯한 주요 인사안도 만장일치 통과됐다.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원각 스님은 1967년 혜암 스님을 은사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이후 해인총림, 영축총림, 조계총림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경남 거창 고견사 주지, 해인사 원당암 감원, 해인총림 유나를 역임했다.

도영 스님은 1961년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9년 금산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1970년 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금산사 주지와 조계종 종회의원,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하고 1999년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법화종 제20대 총무원장에 관효 스님



3월 29일 단독후보 출마
찬반 투표 만장일치 찬성
대선 비견할 관리로 만전
관효 스님 "새 미래 열자"

법화종 제20대 총무원장에 관효 스님(제주 혜관정사 주지, 사진)이 선출됐다. 관효 스님은 제20대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 참석선거인단 전원 찬성표를 득해 만장일치 당선됐다. 법화종이 오랜 종단 혼란을 종식하고 서리 체제에서 정상화 노력을 개진해 온 만큼, 제20대 총무원장 선출을 통한 정식체제로의 전환이 종단 면모를 일신하는 기폭제가 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법화종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현묵, 이하 선관위)는 3월 29일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제20대 총무원장 선거를 시행한 결과, 관효 스님의 당선을 최종확정했다. 관효 스님은 3월 30일 종정 도선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임기를 시작했다. 총무원장 임기는 5년이다.

관효 스님은 "혼자가 아니라 종도와 함께하는 소임으로 여겨, 법화의 가르침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백년탐물 일조진(百年貪物 一朝塵) 삼일수심 천재보(三日修心 千載寶)' 의 가르침을 인용해 "법화종 70년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스님은 "백년 모은 재물은 하루아침 티끌이요, 삼일 닦은 마음은 천년가는 보배라 했다"며 "성년이 되기 전부터 법화종도로서 살아왔고 70년이 넘는 지난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원로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종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제 100년을 향해가는 법화종의 역사가 한국불교의 천년 보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관효 스님은 2000년대 무렵 종단 집행부 소임을 역임한 후, 제주 혜관정사 주지로 전법수행에 매진해왔다. 지난해 혼란한 종단 사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리집행부 기획실장 소임을 맡아 정상화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종단과 종무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데다, 활발한 대사회활동으로 종단 안팎으로 인지도가 높다는 점이 강점이다.

스님은 1975년 자은암에서 혜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1978년 혜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1998년 대법 법계를, 2008년 승정 법계를 품수했다. 자은암 감원을 거쳐 2003년부터 혜관정사 주지를 맡고 있으며, 2000년 법화종 사회부장, 교무부장을 역임했다. 제주교도소 교화위원과 제주경찰서 경승, 한국운전기사 불자회 제주지구 창립 지도법사 등으로 활동, 1998년 법무부 장관 표창, 2003년 민주신문 주최 21세기 한국인상을 수여했다.

대전=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종단 협력 강화해 국민 화합 나서자"

천태종 신임 총무원장 무원 스님, 조계종 예방



신임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이 3월 29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 교류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종단협 회장 원행 스님은 "종단협에서 천태종 역할이 크다. 종단협 발전을 위해 앞으로 노력하자"며 "특히 한중일교류대회, 한일교류대회 등 코로나로 연기된 불교교류와 종단간 협력사업이 원활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종단협 수석부회장이기도 한 무원 스님은 "한국불교계가 서로 화합해 동체대비를 실천해야 한다. 코로나 시기 불교가 해야할 것을 잘 인식, 각 종단 신도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 사무처장 진경 스님 등 종단협 인사들과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 등이 배석했다.

한편, 신무원 스님의 취임법회는 구인사에서 4월 9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봉행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회주 연암 현해
주지 퇴우 정념

사부대중일동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600 팩스 033-332-6915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 오대산 월정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메신저앱 'B톡' 출시

불자네트워크 사업 일환, 전용메신저 및 상품 선보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불자들을 위한 메신저 앱 '비톡' (Btalk)을 출시했다.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는 3월 31일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비톡 사업 업무협약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비톡은 붓다톡(Budda TALK)을 줄인 것으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이다. 텔레그램과 같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안성을 높인 메신저로 불자들이 음성통화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소통하고,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비톡은 정부 공공기관 메신저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솔루션 전문기업인 비드테크(회장 강철순)가 개발했다.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비톡은 수익을 내기 위한 상업성을 가진 시스템이 아닌 불자들의 역량을 모으기 위한 소통의 창구로 기획됐다. 꼭 필요한 시스템임에도 방법이 없었는데 불자기업이 불교발전에 공감, 나서줘 개발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중앙신도회는 3월 31일 불자 메신저앱 '비톡'을 출시하고 교계 언론사들과 활성화 및 홍보 협약을 맺었다.

주 신도회장은 이어 "4월부터 전국 교구본사를 순방하며, 지역 불자들이 비톡을 설치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2022년 50만명, 2023년 200만명의 회원 가입을 목표로 일반인들도 이용하는 메신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현재 비톡의 메신저 서비스 외에도 앞으로 불교 사찰정보를 비롯해 불자장터 등으로 불자기업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불자장터는 개개인이 운영하는 사업, 물품 정보를 올려 비톡 회원들이 검색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된다. 사찰 정보는 전국 25개 교구 및 전국 3000여개 사찰 정보가 사진과 영상 등으로 제공된다.

이날 비톡 런칭과 함께 비톡 회원들을 위한 제휴서비스 혜택도 공개됐다. 비톡에는 한화리조트, IBK기업은행, 전자랜드, 영농조합법인 가가호호 미곡처리장, 제주도 농수축 특산물 온라인 판매처 삼다닷컴, 월드비즈 등이 할인 및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비톡 개발 사업을 맡은 박창범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현재 전국에서 매장 100개 이상을 가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1개 업종 당 1개 업체의 제휴를 목표로 추가 제휴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혜택을 통해 2030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비톡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비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 및 인증절차를 거치면 비톡을 설치한 다른 이용자들이 목록에 보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중앙신도회 측은 "하반기 순방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불자역량 결집을 위한 첫발인 비톡을 설치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자간담회에 앞서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본지를 비롯한 5개 교계 언론과 정보화사업 활성화 캠페인 협조 및 홍보 협약을 맺었다.

불교기후행동, 108배로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

'지구의날' 맞아 불교단체 연대
4월22~23일, 서울·울산 등서
'환경 명상절 108배' 행사 개최
4월 한 달간 ARS 모금 캠페인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발생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 온도가 최근 100년새 1.2℃ 상승했다. 이대로 가면 인간을 포함한 생명 대멸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는 요즘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참회와 서원을 다지는 시민참여 행사를 추진한다. 61개 불교단체와 사찰이 연대한 불교기후행동은 4월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4월 22~23일 서울과 울산, 광주 등지에서 '지구의 날 기도 캠페인-지구는 시원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를 개최한다.

지구의날 당일인 4월 22일에는 12시부터 서울 청계광장과 울산 태화강변에서 '환경명상절 108배' 가 실시된다. 행사는 기도영상과 함께하는 108배 후, 5분 명상으로 진행된다.

4월 23일 오후 3시부터 광주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양일 행사 모두 현장 참여 인원은 스님 50명, 재가불자 50명 등 총 100명으로 제한된다.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하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동참자는 유튜브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불교기후행동 공동대표 일문 스님은 "과도한 에너지와 상품 소비로 인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라고 소개하며 "기후위기를 일으킨 성장, 인간중심 사회에 대한 성찰과 참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교기후행동은 4월 1~30일 한 달 동안 ARS를 통해 환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사랑 모금캠페인' 을 진행한다. 불교기후학교 설립과 교육,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기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사랑 모금캠페인은 후원ARS 060-900-3108(한 통화 3000원)를 통해 가능하다.

불교기후행동은 지구의날을 불자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전국 사찰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법회 시 지구의 날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법문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신도들을 위한 발원문도 제작된 상태다.

관세음환경사랑 상임대표 법관 스님은 "지구의날 캠페인을 통해 단 하루만이라도 기후위기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010-9656-1654

임은호 기자

"선학원 바로서는 날까지 원력 모아낼 것"

선학원 바로세우기 집회
100일 회향한 심원 스님



재단법인 선학원을 향한 우려의 시각이 깊다. 과거 일제강점기 왜색불교에 맞서 청정승풍을 수호했고, 해방 이후에는 불교정화의 산실로서 역할했던 선학원은, 현재 이사장 성추행 문제와 폐쇄적 재단 운영, 이사회 파행 등 수많은 비판에 직면한 채 과거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더 이상 선학원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원력으로 선학원미래포럼이 지난해 11월 10일 입재한 '선학원 바로세우기 제1차 100일 집회' 가 어느덧 100일을 맞았다. 미래포럼을 대표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임위원 심원 스님<사진>은 매주 평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피켓을 들고 선학원 입구 거리에 섰다. 이로 인해 선학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고충을 겪었으나, 최근 경찰은 스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승복을 입고 피켓을 든다는 것 자체가 승려로서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거기다 경찰조사까지 받으면서, 참 쉽지 않은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스님은 단호한 어조로 신념을 드러냈다. 사실 "선학원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인데 성과도 없는 일에 애쓰지 말라"는 조언이 많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애를 쓰냐"는 질문도 숱하게 들었다.

그러나 스님은 " '때' 라는 것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고 했다. 각고의 노력 뒤에 비로소 주어지는 결실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사장 법진 스님이 여직원 성추행으로 확정판결을 받고도 이사장 임기를 만료한데 이어, 다시 4선 이사장으로 복귀했을 때는 충격도 적지 않았다.

이는 스님이 입법에 관심을 둔 계기이기도 하다. 바로 '법진방지법' 이다. 스님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사장, 그리고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이사회가 재단법인을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지를 보면서 누가 이사장이 되더라도 파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 '법진방지법' 은 예를 들면 성범죄와 같은 파렴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아무리 이사회 전원이 찬성하여 선출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이사나 이사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사실 그보다 쉽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분원장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주장하고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 선학원 구성원들이 창립정신을 잊지 않고 부당한 문제들에 직면해 눈 밝은 시각으로 살펴 바로잡고자 한다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변화는 더디겠지요. 아무리 100일 집회를 수없이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령 개선된 결과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런 노력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때 언젠가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추위가 가시고 봄바람이 불어온다. 심원 스님은 회향 다음 날인 4월 5일 다시 '제2차 선학원 바로세우기 100일 집회' 에 입재한다. 당일 오전 11시 선학원 입구 집회현장에서는 선학원 미래포럼 주최로 '4선 이사장 사퇴 및 법진방지법 제정' 을 촉구하는 입재법회가 열릴 예정이다.

스님은 "집회는 선학원이 바로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사실 100일 집회를 몇 차례 반복해야 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원력을 모아 묵묵히 행하다보면 반드시 변화는 찾아올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송지희 기자





걷기명상과 환경정화 통해 도심포교

조계종포교사단 부산지역단 3월 26일 제1차 도심포교 및 환경보호운동 개최

불교미래 위한 '도심포교' 전도 선언 자연보호 생명살림, 불교 정신 전달 포교원 '전법ON!' 순례 발맞춘 행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이 3월 26일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제1차 도심포교 및 환경보호운동'을 개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 이하 부산 포교사단)이 3월 26일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제1차 도심포교(명상 걷기) 및 환경보호운동'을 개최했다.

부산 포교사단은 행사 목적을 '도심포교'라고 밝혔다. 도심 한가운데서 걷기 명상을 실천하고 환경보호 운동에 앞장서 시민들에게 불교 활동을 자연스럽게 노출한다는 목표다. 또 포교사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활동을 다시 활발히 전개한다는 의지도 담았다.

송재린 단장은 "오늘 행사는 '도심포교만이 불교가 살길'임을 알리는 도심포교 전도 선언이다"며 "또한 자연보호 운동을 통해 기후의 변화에 대응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행사는 2022년 단장 취임 이후 발표한 부산 포교사단의 사업 중 하나였는데 지난 2월에 포교원장 범해 스님께서도 순례와 신행을 통한 전법 토대 구축 '전법ON!' 순례를 실시한다는 종책을 발표하셨다. 종책과 부산지역단의 사업이 통한 듯이 뜻이 맞아 더 의미 있는 행사이다"고 말했다.

걷기 명상 및 환경정화 활동은 부산 북구 지하철 3호선 구포역을 출발해 부산 사상구 괘법동 르네시떼 역까지 약 7km 동안 이어졌다. 구간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부산 북구 낙동강변 산책 코스이며 부산시에서 선정하는 아름다운 산책로 '갈맷길' 가운데 하나이다. 산책로는 봄이면 벚꽃이 장관을 이뤄 많은 사람이 찾는 장소이지만, 많은 시민의 방문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곳이다.

행사에는 지도법사 해륜 스님(범어사 포교국장)과 송재린 부산지역단 단장 및 역대 단장들을 비롯해 중부지역, 남부지역, 서부지역 등 포교사단 각 총괄팀장 등 부산 포교사단 300여 명이 동참했다.

포교사들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고, 걸을 때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에 마음을 기울이는 걷기 명상을 진행했다. 또 봄을 맞아 피어난 봄꽃들을 바라보며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도법사 해륜 스님은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활개를 펼치고 멋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걷기명상과 자연보호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불교의 정신을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송재린 단장은 "우리 포교사들은 부처님의 자리이타행을 실천하고 불법홍포와 봉사에 전념하고 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우리 포교사단이 하나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월선원만행결사 평화순례가 부산에서 진행될 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란 의지도 전달했다.

한편, 부산 포교사단은 강원도와 경북지역에 발생한 산불피해 극복 후원금 320만 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이날 행사에 동참한 포교사들에게 제공할 점심 공양비였다. 포교사들은 행사 참여 전에 공양비 제공 소식을 들었고, 이재민 돕기에 전액 회향할 뜻을 밝혔다.

여여불교대학, 입학생 395명 등록

3월 27일, 제3기 입학식 및 졸업식



부산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학장 효산, 이하 여여불교대학)이 3월 27일 경내 법당에서 '2022년 불교대학 입학식과 졸업식'을 봉행했다.

여여불교대학 입학생은 주간전문반 45명, 야간전문반 91명, 주말전문반 38명, 온라인불교대학 53명을 포함해 227명과 법화경 경전반 168명이 입학해 총 395명이 등록했다.

여여불교대학은 도심포교를 목표로 3년 전에 개원했다. 코로나 기간에도 매년 400여 명에 이르는 불자들이 등록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여여불교불교대학 프로그램은 부처님의 생애, 불교개론, 불교역사, 템플스테이 등을 진행하며 책 〈가시를 거두세요〉의 저자 광우 스님의 특강도 이어진다. 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된다.

학장 효산 스님은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자 많은 불자들이 등록해 감격하다"며 "부처님의 전법 선언처럼 정법을 수호하고 알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서예작가 3인 '吳李長 展' 개최

〈오이장〉

통도사성보박물관, 4월 17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송천)이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오이장(吳李長)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오지혜, 이정, 장인정 세 명 서예인이 참여하는 전시로 이번 전시의 주제는 야단법석(野壇法席)이며, 작가들은 주제에 따라 문인화, 전각, 현대서예, 설치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오지혜 작가는 '연꽃'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인화를 선보인다. 이정 작가는 서예의 문자성을 가지고 '불립문자'라는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장인정 작가는 전각을 통해 불상의 이미지를 색다르게 보여준다. 작가들의 합동전시는 이번이 일곱 번째다. 1998년 첫 합동전시를 시작으로 2014년에 열었던 오이장 展 '익자삼우(益者三友)' 이후 8년 만에 다시 마련됐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서예는 불교전통예술문화의 한 분야이다. 고승들은 서예를 통해 경전을 읽고 배우는 경지를 넘어서서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주는 예술을 보여줬다"며 "이번 전시는 과거를 잇고 현대 작품의 특징을 함께 보여주는 새로운 서예 전시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055)384-001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나누우리, 산불 이재민돕기 성금전달

울진군청에 성금 2000만 원

태고종 국제구호단체 (사)나누우리(이사장 만우)가 3월 28일 울진군청에서 이재민 긴급구호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한 성금은 나누우리에서 1000만 원, 회원불자들이 모은 이재민 돕기 성금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이며, 성금은 동해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전달된다.

전달식에는 이사장 만우 스님과 상임이사 자우 스님, 홍보이사 무종 스님을 비롯해 방형섭 행정복지국장 등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명사, 제1기 생활치유명상 강좌

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가 3월 31일 경내 지관전에서 '제1기 생활치유명상 개강식'을 봉행했다.

첫 강좌에서 윤종갑 교수는 '명상 이해'와 '명상 및 불교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명상은 인간 문명이 발전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전승 발전되었다. 물질문명이 발전할수록 명상의 중요도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사람은 정신과 육체로 구성되어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 가운데 사람은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힘들어한다.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명상이다"고 말했다.

개강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 △고불문 낭독 △주지 스님 환영사 △강사소개 및 인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윤종갑 교수의 명상 이론 수업이 이어졌다. 개강식에는 주지 춘광 스님을 비롯해 윤종갑 교수와 안영숙 강사가 참여했으며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3월 31일 경내 지관전에서 '제1기 생활치유명상 개강식'을 봉행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우리가 호흡하는 가운데 수많은 법계가 들어왔다 나간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우주법계와 나 자신을 관찰하는 방법이다"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지켜보며 일상 가운데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알고 성장하기를 바란다. 마음챙김을 통해 주인공으로 여여하게 일상을 영위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종갑 교수(동아대 철학생명윤리학과)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다. 사회의 어려움과 함께 마음의 불안도가 더욱 높아진다"며 "심신의 안정이 더욱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강좌가 열린 것 같다. 이런 시간을 열어주신 광명사 주지 스님과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명사는 일상 생활 가운데 명상을 적용하고 불자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치유명상 강좌를 마련했다. 생활치유명상은 3월 3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지관전에서 진행한다. 명상과 호흡, 지관명상과 깨달음, 걷기명상, 정좌명상, 바디스캔 등 이론과 실기를 교차로 강의가 진행되며 총 15강이 이어질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수정산투자, 아동·청소년 지원 후원금



㈜수정산투자(대표 김호윤)가 3월 28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강렬)에 부산진구 개금3동 거주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한부모 및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현물지원 사업,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관심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사회복지 이해 증진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사회복지 탐구생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한 신체와 정서 성장 및 지역사회 관심 확대 지원 프로그램 'GOOD食(식)'에도 활용된다.

㈜수정산투자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과 인연을 맺은 지 3년이 되었다"며 "지원을 통해 부산진구 개금3동의 아동·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화 스님 기념관 무안에 건립된다

3월 26일 혜운사서 착공식

현대 한국불교 큰 스승으로 추앙받는 청화 대종사(1924~2003)의 기념관이 착공했다. 전남 무안 혜운사 청화대종사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위원장 혜용, 박문재)는 3월 26일 혜운사 마당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양사업을 봉행했다.

청화 스님의 탄생지에 세운 혜운사 일대(운남면 성내리 639-7)에 새워지는 기념관은 전체 3만평 규모로 사업비 총 53억 원을 들여 청화 스님 기념관, 명상관, 종각, 요사체, 템플스테이 수련원 등을 건립한다.

특히 기념관은 90평 규모로 유물, 유품 전시, 생전 법문 영상을 정리한 영상실을 갖추고,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명상관이 50평 마련된다.



무안 혜운사에서 사부대중이 청화 스님 기념관 착공 시삽을 하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향후 "청화 스님의 가르침을 잇는 염불선을 비롯해 간경, 참선, 염불, 주력 등 불교수행 프로그램 운영과 혜운사 소유 부지 일대를 정비해 역사와 힐링, 문화공간이 함께하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식에는 벽산문도회 대표 도일 스님, 혜용 스님, 성륜사 주지 대주 스님, 백양사 부주지 만당 스님, 종회의원 원명 스님 등 백양사 문도와 무안불교사암연합회 덕산 스님, 무안군 김산 군수, 진주 강씨 무안종진회 강승철 회장 등 200여 대중이 참여했다.

추진위 공동위원장 혜용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청화 큰스님 기념관을 통해 스님의 뜻을 기리고 스님의 법향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하여 해안지역 문화와 농축산물, 생활 관광, 레저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만당 스님은 축사를 통해 "오늘 정말 훌륭하신 수행과 정진력으로 저희들에게 큰 감화를 주셨던 청화 대종사의 기념사업 착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청화 대종사의 가르침과 수행을 되새기며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희망이 싹트고 수행과 정진의 힘을 얻어서 세상이 밝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자들 울주 산불지역 1천그루 나무 심다

울산 정토사 3월 27일 식목봉사 전개



나무 심기를 마친 불자들이 산림 회복을 서원하고 있다.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3월 27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주군 웅촌 청량지역에서 벚나무 1000그루를 심는 '함께 하는 삶을 위한 나무 방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과 정토사 신도 100여 명, (사)참 좋은 세상 울산불교환경연대 대표 천도 스님과 회원, 울산불교문인협회, 징검다리중앙회, 울산남구종합복지관 등 지역 단체 소속 불자 17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심어진 나무는 벚나무 3년생으로 생명력이 강하여 산불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는 나무다. 나무심기가 이뤄진 청량지역은 3년 전인 2019년 산불로 황폐해진 이후 울주군과 산림청, 산림조합 등이 합동으로 1000여 평을 조성, 탄소흡수림 숲가꾸기를 진행 중인 곳이다.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은 "사찰에서 매년 해오던 물고기 방생을 지양하고 산불로 황폐해진 곳을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나무 방생이라 이름하여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이산 탑사·쌍봉사 자비의 백미나눔

태고종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각각 1,000kg을 전달했다.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3월 30일 불자들이 부처님 전에 공양올린 공양미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역의 어르신들과 보훈단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마이산탑사 나누우리봉사단장 수암 이재현 거사는 인사말에 "지역 소외된 이웃과 독거 어르신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를 나눠 이웃과 상생하자"고 말했다.

진안 쌍봉사 보경 스님은 "공양미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길"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부처님께 공양한 백미를 이웃에게 나누는 등 자비나눔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월주 대종사 선양 '태공문도회' 명명

월주 대종사 생신다례재 봉행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가 태공당 월주 대종사 88세 생신다례재를 봉행했다. 3월 27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다례재에는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부주지 원혜 스님, 서고사 주지 화평 스님 등 문도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월주 대종사 생전 영상 시청으로 시작된 이날 다례재에서는 도영 스님의 헌향, 원행 스님의 헌화 등이 진행됐다.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이 헌화하고 있다.

다례재에 참석한 사부대중들은 평소 월주 대종사의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설법전에서 열린 금산사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북불교백년대계 정책기획단 활동보고, 수현사 사부대중 공동체 추진사항, 지구촌공생회와 나눔의 집에 대한 보고, 월주 대종사 문집출판, 부도 건립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원탁회의'를 2022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문도회의 정식명칭은 '태공문도회'로 정하고 문도화합을 위한 공의체계와 소임자 선출제도 연구팀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문화 체험하는 '석전기념관' 들어서다

선운사 불교체험관 3월 31일 준공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선운사 불교체험관을 준공했다. 3월 31일 불교체험관 현장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혜산 스님, 대우 스님, 법현 스님, 범여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성오 스님,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 종회의원 태효 스님, 재안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조봉업 전북도행정부지사, 최인규 고창군의장, 이주철 고창부군수 등 지역 기관장 및 불자들이 참석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기념사에서



3월 31일 선운사서 열린 준공식에서 사부대중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불교문화체험관은 석전 정호대종사의 정신과 유업을 계승하여 전통문화인 종교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유지로 세워진 것으로 석전기념관이다"며 "석전기념관을 통해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많은 이들이 공유하고 소통, 석전대종사의 정신을 본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 "불교체험관 개관이 우수한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보탬이 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녕 도성암 불교대학·예향다회 졸업식

3월 27일 100여 불자 모여 서원

화왕산 도성암 불교대학·예향다회가 졸업식을 개최했다. 창녕 도성암(주지 만천)은 3월 27일 경내 약사전에서 불교대학 제14기 졸업식 및 예향다회 제7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도성암 주지 만천스님(불교대학학장)을 비롯해 이칠봉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안종욱 창녕군의회의원, 김상규 불교대학 교수, 여래자 예향다회 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졸업식은 개식, 타종(5타), 헌다,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봉독, 내빈소개, 학사보고, 불교대학 졸업장 및 상장 수여, 예향다회 졸업장 및 수료증 수여, 입학생 선서, 학장스님 인사말, 축사, 졸업생 인사, 발원문낭독, 사홍서원, 산회가, 공지사항,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졸업식 및 입학식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학장 돈관)은 3월 27일 경내 만물보전에서 불교대학 38기, 대학원 2기 졸업식 및 불교대학 40기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 및 입학식에는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과 소임 국장 스님 및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경북불교대학 학장 돈관 스님은 "날마다 좋은날이지만 오늘은 더욱 좋은 날"이라며 "모든 인연은 시절인연이니 선근공덕을 많이 지어 각자 마음자리를 잘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대학 38기 졸업생은 주간 15명, 야간 16명으로 표창상, 공로상, 개근상 등이 수여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日 불교계 우크라이나 위한 종소리

시네마현 불교회, 3월 8일 발기
우크라이나 비극 관심 촉구하며
매일 2시, 각 지역서 범종 울려

박영빈 객원기자


우크라이나에 다시금 평화의 아침이 오길 바라며 범종을 울리는 스님. 사진출처=산닌 중앙신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전쟁 종식과 평화를 염원하는 종소리가 울리고 있다. 일본 불교계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의 종 운동'을 시작했다. 일본 '츄니치 신문'과 '산닌 중앙신보'는 3월 22일 일본 각지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에 대해 보도했다.

3월 8일 일본의 시마네현 불교회가 발기한 '평화의 종 운동'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범종을 울리는 캠페인이다. 시마네현 불교회는 현 내의 13개 시, 22종단의 1100여 개의 사찰과 35개의 불교단체가 가입한 거대불교 단체다. 시마네현 불교회는 최근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세계평화에 대한 가치를 중요 주제로 삼고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해 가을에는 해당 주제로 전일본 불교도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시마네현 불교회의 회장인 시미즈타니 젠케이 스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힘은 작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울림이 퍼진다면 끝내 부조리한 폭력을 완화하고, 평화를 되돌리는 힘이 된다"며 캠페인을 시작한 계기를 전했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사찰과 단체는 가능한 범위에서 매일 우크라이나 현지 시간 오전 7시(일본시간 오후 2시)에 맞춰 범종을 울린다. 매일 조석예불 전에 울리는 것과는 다른 시간에 타종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오길 바라는 뜻이다. 시마네현 불교회는 타 지역의 불교회나 사찰, 단체 등에 함께해 줄 것을 바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마네현 불교회의 뜻에 따라 다른 도시의 사찰에서도 평화의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시카와현 하쿠산시에 소재한 토쿠쇼지(德證寺)는 미국에 선을 전한 스즈키 다이세츠의 영문 휘호가 새겨진 범종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울렸다.

토쿠쇼지의 신도회장인 후타기 타케노부는 "토쿠쇼지 범종은 2차 대전 당시 금속공출로 소실된 후 전쟁이 끝나고 새로 주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당시 사찰과 인연이 있던 스즈키 다이세츠 선생이 특별히 영어로 '평화와 자유의 종(The Bell of Peace and Liberty)'이라는 휘호를 주었다. 종 이름과 같이 우크라이나에 빠른 평화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운동 발기인 중 한 명인 시마네현 불교회의 야기라 잇카쿠 스님은 "전 세계 사람이 '이상하다'고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베트남전 역시 전 세계의 여론이 움직여 멈췄던 전례가 있다. 일본에서도 이런 운동이 있음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전하고 싶다"며 "일본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도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전한다.

日불교계 위기…사찰 이어 종단도 소멸?

저출산·고령화 문제 떠오르며
군소종단·불교단체도 불투명
관혼 상제 대한 무관심 커지며
젊은 세대의 사찰 구심점 소멸


사찰에 이어 미래에는 전통적인 종단도 소멸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사진출처=프레지던트 온라인인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불교계 역시 출가자 감소가 가시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지역 사찰의 폐사와 공찰 문제가 심각한 일본에서 최근 종단마저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3월 26일 해당 문제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일본은 예로부터 종파불교로 불릴 정도로 종단간의 종지와 특성이 뚜렷하다. 약 150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불교는 현재 종교법인과 불교계 신흥종교를 모두 포함해 156개 종단이 등록돼있다. 종교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우카이 히데노리 스님은 "1939년 종교단체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본불교는 13종 56파, 전시 종교통제를 위한 법령하에서도 28개의 종단이 있었다"며 "일본 종파불교 역사의 뿌리가 매우 깊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보통 일본 불교계에서는 13종 56파를 '전통불교교단'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 종단과 단체는 '불교계 신종교'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의 전통불교교단 중 가장 세가 큰 종단은 정토진종으로 종단 내 두 파(혼간지파, 오타니파)를 모두 합쳐 1만 8874개소의 사찰이 등록돼 있다. 이어서는 선종인 조동종으로 1만 4593개 사찰이 등록돼 있다. 한편 대불로 유명한 나라의 토다이지를 총본산으로 하는 화엄종의 경우 108개소 사찰이, 8세기에 성립된 율종은 28개소 사찰뿐이다. 우카이 스님은 "소규모 종단 중 지방도시에 소재한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찰은 물론 종단의 존속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물론 지방도시 인구 감소에 따른 신도수 감소로 사찰을 지탱하는 근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출가자 감소도 문제다. 규모가 큰 종단의 경우 상주하는 스님이 없는 사찰이라 하더라도 인근 다른 사찰 주지가 주지를 겸직할 수 있지만, 소규모 종단의 경우 결국 공찰이 폐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카이 스님은 "이대로라면 2040년에는 현재 전국 7만 7000여 사찰이 5만여 개 정도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종단 역시 소멸하거나 다른 대형 종단에 합병 혹은 흡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했다. 일본정부의 종교연감에 따르면 본산을 포함해 단 5개만이 등록된 종단도 존재한다. 이 종단의 경우 95년 종교연감에서는 11개였던 것이 반수 이상의 사찰이 종지가 유사한 타 종단으로 전종해 흡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젊은 세대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도 이런 현상에 한몫하고 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단가제도(檀家制度)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단가제도에서 한 집안과 한 사찰이 연결돼 사찰이 관혼상제를 주관해 주면서 관례적으로 사찰에 보시하거나 운영을 보조해왔으나, 그러한 구심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우카이 스님은 "전후 도시로 이전한 핵가족들을 상대로 불교계 신종교들이 세력을 키워왔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젊은 세대는 관혼상제에 있어 사찰과 불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쿠시나가르 여행 재개

베트남 불교 대표단 첫 방문
공항 개발 위한 발전금 전달


쿠시나가르 공항 전경.
사진출처=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2년 가까이 문호를 닫았던 인도에 다시금 성지순례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인도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은 3월 28일 쿠시나가르에 국제 불교 순례단이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와 함께 여행자들에 대한 비자를 중단했던 인도 정부가 최근 비자를 다시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2년간 중단됐던 쿠시나가르 정기 국제선이 재개됐다.

베트남 불교를 대표하는 '베트남 불교 승가(VBS)'의 회장, 틱뚝티엔(thich duc thien)스님이 이끄는 베트남·태국불교 대표단은 3월 27일 인도 정부로부터 특별 비행허가와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다. 이번 방문은 인도 정부가 국제 여행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국제 불교순례단의 공식적인 첫 방문이다.

VBS는 최근 하노이 주재 인도 대사관과 국제 불교경시대회를 공동 기획했다. 불교 경시대회의 우승자들로 이루어진 이번 성지순례단은 불교 4대 성지 및 다양한 불교유적지를 방문 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 이륙한 전세기가 쿠시나가르에 착륙하자 지역주민들이 모두 공항으로 나와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했다. 또한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는 공식적으로 성지순례를 온 모든 인원을 환영하며 쿠시나가르에 머무는 동안 모든 지원을 약속한다고 발표했다.

쿠시나가르 국제공항은 지난해 10월 20일 완공됐으며 동남아 각 불교국가들간의 국제노선을 취항하고 있다. 이 공항은 그동안 열악한 교통편으로 방문이 어려웠던 입멸성지와 가까운 곳에 건설돼 다양한 불교 유적지와의 원활한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 불교 대표단은 국제공항 개발을 위한 발전금 1000달러(한화 약 130만원)을 전달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스리랑카 스님들, 정부에 국민 구제 촉구

물가상승으로 경제 위기
효율적 대책 수립 요구


스리랑카인들이 콜롬보의 한 주유소에서 가정용 등유를 구입하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다.
사진출처=가톨릭 아시아 뉴스 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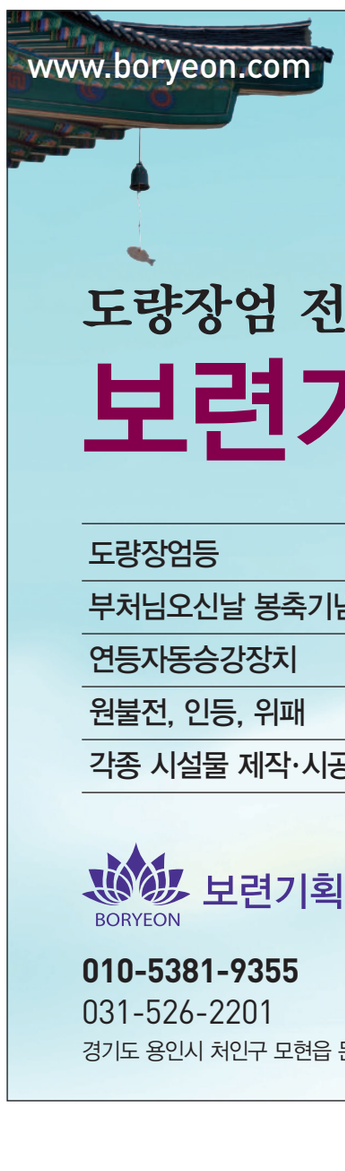
스리랑카 스님들이 정부에 경제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국가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홍콩 '가톨릭 아시아 뉴스 연합'은 3월 22일 스리랑카 스님들이 정부에 민생대책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고 전했다.

계속 되는 물가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스리랑카. 이에 정부는 중국에 25억 달러(한화 약 3천억 원)을 요청한 상태다. 전국적으로 휘발유와 경유를 사기 위해 주유소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으며 분유, 의약품, 식료품과 같은 일상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한 대기줄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수 천명의 스리랑카인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수 주간 대통령 집무실 밖에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스리랑카 각 종단의 최고원로 스님들은 정부에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곤경에 즉각 반응할 것을 촉구했다. 말왓타 종단의 장로 티밧투와웨 스리 수망갈라 스님, 아스기리야 종단의 장로 와라카고다 그나나라타나 스님은 3월 21일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공공부채의 구조조정, 생활비 절감, 저소득층에 대한 구제, 자원낭비, 정재계의 부패를 막기 위한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또 경제위기에 직면해 무분별한 금융이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필수물자 부족을 초래하는 사기범에 대한 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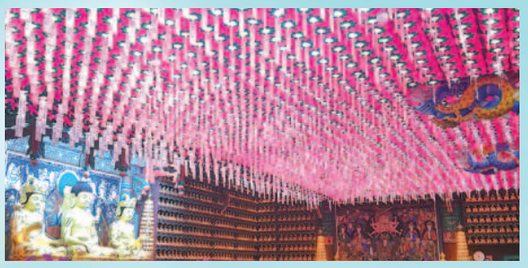
스님들은 라자팍사 대통령이 국가의 안보와 주권을 위해 선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칭찬하면서도, 국가 경제 건설을 위해 모든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과 소속을 불문하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곤경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전 국민 기증 등록…정부차원 지속적 캠페인 비결

생명나눔실천본부 ·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

② 해외사례 통해 보는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어느 나라나 매우 큰 숙제다. 기증희망 등록이 의미하는 것이 곧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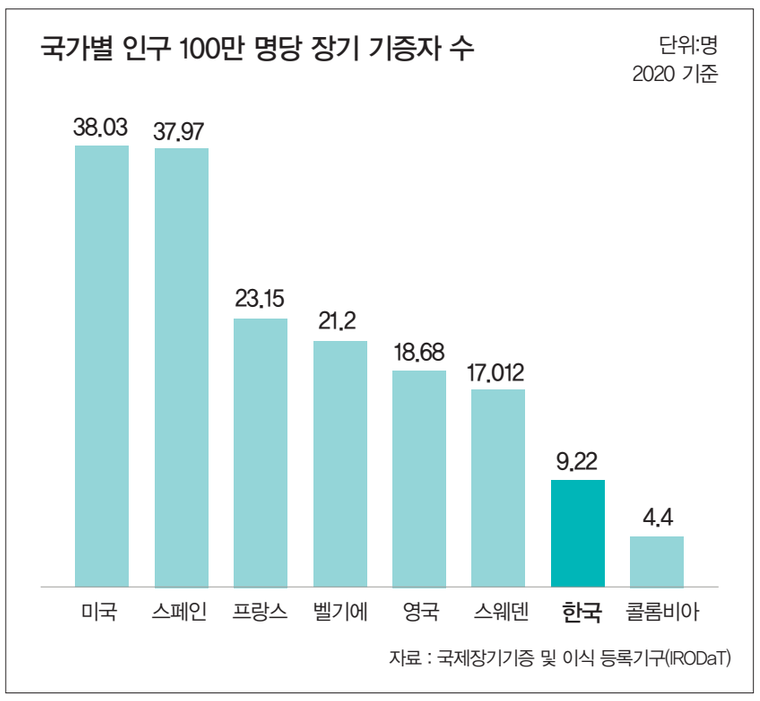
그동안 정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굵직한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와 함께 희망등록 현황이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실제 장기 기증률이 줄어드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효율적인 제도 시행이 절실할 때다. 장기기증과 희망등록 활성화에 대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 전역에서 펼쳐지는 장기기증 홍보활동 'Donate life' 모습.





공적 관리 · 교육 체계 갖춘 미국

미국이 이같이 높은 기증률을 자랑하는 데는 장기에 대한 공적 관리 체계를 탄탄히 갖췄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역 단위로 장기확보 및 이식망이 구성돼 있다. 1977년 설립된 장기기증 연합 네트워크(the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 UNOS)를 중심으로 50개 주에서 62개의 장기조달기구(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OPO)가 활동하며 모든 장기기증 관련 단체들과 연계돼 있다. 장기기증 연합 네트워크는 3교대로 24시간 가동되며 이식 대기자의 정보가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다. 또 장기이식 수술에 대한 임상적 결과자료를 수집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각 장기별로 의사와 기증인 · 이식인 가족들로 구성된 20개의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장기조달기구는 'Donate life'라는 통합 브랜드를 사용하며, 광고나 마케팅 활동의 시너지효과를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적은 예산에 각 단체별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돼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효율적이다.

미국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도구들을 갖추고 있다.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직장 교육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기증 정보는 물론 리플릿, 사은품, 관련된 도구들 그리고 강사까지 제공한다. 기증자 가족을 위한 교육, 슬픔에 잠긴 기증자 자녀를 위한 교육, 외국인을 위한 교육, 종교를 통한 교육, 의료진 교육 등 계층별 교육도 갖춰져 있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인 공헌과 봉사의 의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또 1월 로즈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매월 장기기증 행사가 정해져 있어 국민의 관심이 장기기증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노출시킨다.

국가 나서 장기기증 캠페인 펼치는 스페인

스페인의 장기기증률 전 세계에서 단연 독보적 수준이다. 인구 100만 명 당 38명이 기증하는 세계 최고 장기 기증국이며 이는 외국 환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제공된다. 스페인에서는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장기이식을 받고 있다.

스페인에서 기증활성화가 된 이유는 모든 국민이 장기기증을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는 점에 있다. 장기기증을 원치 않는 경우 역시 주민센터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만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제도(opt-in)를 취하는 것과는 반대다. 장기기증 희망등록부터 이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별로 의학적 법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어 장기기증자와 이식자 모두 혜택을 받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 세계적으로 장기기증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손꼽힐 수 있게 됐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협업해 다양한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치기도 한다. '당신은 타인을 위한 완벽한 사람입니다(You are the perfect for others)'라는 캠페인으로, 스페인 국립장기이식기관과 국영 우체국 꼬레오스(Correos), 메디아셋 에스파냐 방송국이 함께 펼친다.

방송을 보고 장기기증 희망서약을 하면 꼬레오스에서 특급우편 서비스 소포360을 이용해 이들에게 감사 서신과 기증자 카드 등이 담긴 패키지를 발송한다. 덕분에 한 해 약 17만 명이 등록할 정도로 활성화됐다. 또한 전문가 교육센터(TPM)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높은 전문 지식과 신뢰를 갖춘 전문인들이 지역 및 국가 단위로 갖출 수 있었다.

모든 국민 장기기증 등록된 프랑스

장기기증에 적극적인 프랑스는 2017년부터 가족이 장기기증에 반대해도 사망자가 생전에 기증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다. 모든 국민이 뇌사상태일 때 장기기증을 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장기기증을 거부하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 반드시 생전에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주민센터에 신고(opt-out)해야 한다. 프랑스는 1976년부터 이미 생전에 장기기증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사망자에 대해 장기기증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을 시행 중이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사망 시 장기적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시행에 들어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해 장기기증 의사가 있었음에도 기회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고, 법에 명시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증자나 수해자가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솔선수범 나선 지도자층과 기업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식할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대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장기기증을 넘어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과 생명을 제공하며 국제적인 장기 밀매의 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며 국가의 산업 생산성을 높인다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사회지도층과 공인이 앞장 섰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재임시절 간 이식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해 장기기증을 호소한 적이 있으며 영국의 블레어 총리 부부도 직접 장기기증 등록을 함으로써 영국 내에서 기증운동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애플사는 창업자 故 스티브 잡스가 간 이식을 받은 후 아이폰을 이용해 간단한 방법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앱(App)을 개발했고 이는 실제로 매우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이 됐다. 이 앱은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이식 게임(Transplant game)을 개최해 이식 대기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며 장기기증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있다.

참고자료

1) 해외사례를 통해 보는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최기호 · 장경숙, 주간 건강과 질병 제11권 제39호, 2018)

2) 해외 사례 비교 고찰을 통한 국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방안(현윤정, 경북대, 2020)

"당신의 아름다운 선택"
장기기증 희망등록
홈페이지 www.lisa.or.kr
전 화 02)734-8050
팩 스 02)734-8052

일면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장기기증 권선문**

장기기증 희망등록, 한 사람 생명 살리는 디딤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추위로 쌀쌀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계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살랑살랑 봄바람 타고 오는 봄꽃향기와 함께 수많은 행복이 가득 피어나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부처님이 태어나시면서 설하신 이 말씀에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함축돼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지니니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소중하게 섬기라는 말씀. 바로 생명 존중, 인간 존중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부처님의 세 가지 가르침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이 세상 모든 이치는 원인이 있어 결과가 온다는 인과의 이치를 깨달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들 공존의 터전인 국토를 청정하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와 이웃들을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시대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오신 뜻을 받들어 끊임없는 정진으로 서로를 공경하며 더불어 행복하기 위한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이치를 깨달아 본래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불성을 지닌 중생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처님을 닮아 가도록 정진해야 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실천하고 있는 활동들도 부처님 가르침과 뜻을 같이 합니다. 생명나눔이라는 고귀한 실천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2000년, 간이식 수술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1분 1초를 다투던 순간, 간을 기증해 준 뇌사자가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저에게 간을 기증해 준 그분 덕분에 저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기기증 수혜자로서, 저는 기증자의 뜻을 높이 기리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진정한 이타행을 실천하며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증자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장기기증을 통해 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일은 최고의 자비인 동시에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생명 존중, 인간 존중의 가장 헌신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나눔입니다.

의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만이 최선책인 사람을 위해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불교의 근본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생에서의 죽음을 진정한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새로운 탄생이며 이는 윤회하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선택과 순수한 자비심으로 장기를 기증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신체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선업에 의해 반드시 더 좋은 과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나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 우주 만물의 기운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장기기증은 장기 부전의 고통 속에서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나눔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기이식만이 마지막 치료 수단인 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나눔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디딤돌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의 약속이 희망이 됩니다.

당신의 나눔이 기적이 됩니다.

부쩍 따뜻해진 바람과 이제 막 파릇파릇 돋아난 새싹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들뜨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상황이 개선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일상생활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찾게 되는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봄이 되시길 바랍니다.

흙으로 빚은 스님의 27년 일기장

정운 스님 '이야기가 있는 도예전 II'
경인 미술관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정운 스님

직접 빚고그린 작품 80여 점 전시
농어촌 청소년 대상 교화 30여 년
2005년부터 공방을 청소년에 개방
6회분 짜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일상에서 영감을 얻는 것도 수행"


정운 스님 作, 절에 가는 길.


정운 스님 作, 노 비구니의 일상.


정운 스님 作, 깊은 인내의 날.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자 충남 보령 세원사 주지 정운 스님이 두 번째 도예전을 연다. 정운 스님은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경인미술관 제6전시관에서 '이야기가 있는 도예전 II'를 개최한다.

"일상 속에서 영감을 얻어내는 것도 수행의 일부분이라 그때그때 생각들을 응집하여 손끝으로 옮겨보았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30년 가까이 청소년 교화와 포교에 헌신해 온 정운 스님은 7년 만에 여는 이번 전시에서 '겸허한 미소', '절에 가는 길' 등 현대적 감각을 살린 작품 80여 점을 선보인다.

"2015년 첫 전시 이후 7년 만에 두 번째 전시를 마련했다. 수행나이, 세속의 나이도 칠순의 언저리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이즈음 나의 속살을 대중들에게 드러내 놓은 일,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과 시간들 속에 미련의 거점은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세상과 소통을 한다."

정운 스님이 처음 흙은 만난 것은 27년 전이다. 스님의 '흙'은 스님이 평생 헌신해온 '청소년'에서 비롯됐다. 스님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좋은 것', 즉 좋은 '문화'를 만나게 해 주고 싶었다. 그런 스님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흙'이었다. 자연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것,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흙'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정운의 '흙'은 스님의 또 하나의 '평생'이 되었다. 경전이고 염불이고 계율이 되었다. 정운의 수행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 스님의 머리에 잘못 올라 탄 코로나 백신 균들은 / 머리카락이 없어 바로 균이 결착하지 못하고 / 미끄러져 떨어져서 죽기도 하는데 / 그 원인은 스님들이 신는 흰고무신 때문이라 한다. // 코로나균이 스님의 머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 / 스님이 신고 있는 '흰고무신'에 부딪히게 되는데 / 이때 대개는 뇌진탕으로 죽거나 일부는 발냄새에 의해 / 시한부로 박멸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 흰고무신(백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 2년여 간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기에 / 이런 이야기가 위로가 된다면 하는 생각에 / 즐겨 신는 흰고무신을 부각시켜본다."

작품 '백신(가로25cm×세로25cm)'에 붙은 글이다.

작품 '백신'은 말 그대로 하얀 고무신을 작품화했다. 스님의 도예는 그런 것이다.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그날그날, 그때그때 자신을 스쳐가는 일상에서 받은 느낌, 질문, 회상 등의 '이야기'를 흙으로 빚는다. 흙으로 빚는 일기장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전시장에서 대중의 것이 된다. 작품을 바라보는 대중은 그 작품의 처음으로 돌아가 작품이 시작된 이야기를 만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스님이 흙을 빚는 이유다.

스님의 도예는 고려의 청자를 따른 것도 아니고 조선의 백자를 따른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소위 '족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스님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스님은 혜전대학 도예과, 군산대학교 산업도예과 석 · 박사를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의 도예가 오래된 물줄기를 따르지 않고 나름의 물줄기를 만든 것은 그 시작과 동기가 보통의 도예와 다르기 때문이다. 스님의 도예는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스님은 2005년부터 스님의 공방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개방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직접 도예 체험을 할 수 있다. 스님에 따르면 아이들이 흙을 만지는 순간만큼은 흙 속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스님은 그 흙과 함께한 시간이 훗날 아이들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림을 배운 적은 없다. 하지만 매일 매일 하얀 도판 위에 일기를 써내려가는 마음을 손끝으로 담아보았다. 이번 작품들은 손끝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스케치하고 성형하고 그림을 얹었다. 다소 어설프고 세련되지 못해도 노 비구니의 수행 여정으로 살펴주었으면 좋겠다. 뒤돌아보니 일상 모두가 나의 수행이 아니었던 것이 없었던 것 같다."

스님의 작품에는 스님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함께한다.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고, 나비가 꽃을 찾고, 각양각색의 연꽃이 피어난다. 그 어느 계보도 따르지 않은 정운의 그림이다. 아니 새로운 계보의 그림이라고 하고 싶다.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충남 보령 세원사는 담도 없고 일주문도 없다. 스님이 1989년 시골 동네 한가운데 마련한 세원사, 창문을 열면 논과 밭이 보이고 지나가는 기차가 보인다. 그런 풍경 속에서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이야기들이 정운 스님의 도예이고 그림이다. 그리고 일기장이고 작은 경전이다.

"뭔가 집중하고 싶은 맛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 나는 작업실을 향한다. 그때 생각들이 응집되어 손끝으로 뿜어 나오는 에너지가 또 다른 이름이 되어 내게로 다가올 때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수행도구임을 확인한다."

정운 스님은 1975년 석남사로 출가했다. 운문사 강원, 내원사 선원, 중앙승가대학을 거쳐 혜전대학 도예과, 군산대학교 산업도예과,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 · 박사를 졸업했다. 사회복지박사로서 한서대학 겸임교수 및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세원아청문화육성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세원사 주지로 있으면서 5권의 시집과 5권의 산문집을 낸 시인이기도 하다. 27년째 농어촌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복지, 상담, 문화, 선도를 이끌어가는 청소년 지도사이다. 보령시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장, 조계종 17대 종회의원,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및 회칙개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예부분에서는 37회 전남 무등미술대전에서 특선했다. 2015년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이야기가 있는 첫 도예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문의 경인미술관(02-733-4448)


손묵광 作, 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국보 제84호).

손묵광 사진전 '피안의 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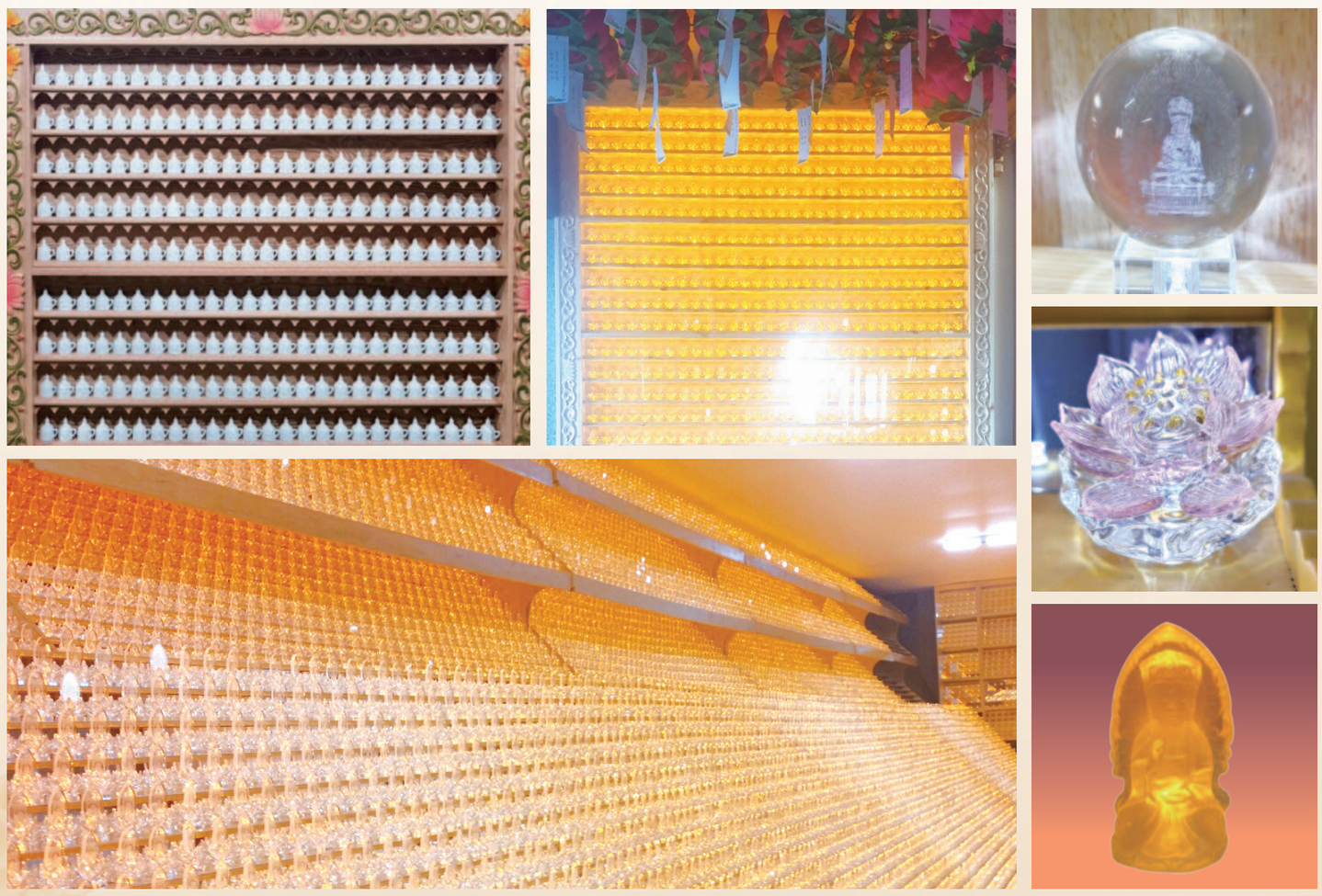
전남대博 4월 20일~5월 24일
전국 마애불 사진 25점 전시해

우리나라 마애불을 일별해 볼 수 있는 사진전이 마련된다. 우리 문화유산을 사진으로 기록해온 손묵광 사진가가 4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전남대학교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사진전 '피안의 미소'를 개최한다. 전남대학교가 2022년 개교 7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손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지난 2년 동안 촬영한 우리나라의 마애불(국보 7기, 보물 40기, 유형문화재 140기, 미지정) 사진 25점을 선보인다.

손 작가는 지난 2년 동안 지구 한 바퀴의 거리 이상을 달려 마애불 200여 기를 촬영했다. 이번 전시에는 백제의 미소로 잘 알려진 백제시대의 마애불,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국보 제84호)과 신라시대의 대표적 마애불 경주 단석산 신선사마애불상군(국보 제199호), 고려시대의 걸작 북한산 승가사마애여래좌상(보물 제215호), 조선시대의 마애불인 예산장신리마애불 등 시대별 마애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돌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 인화지 대신 한지를 사용해 흑백으로 처리했다.

손묵광 작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41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DAF 국제아트페어우수작가상, 한국미술진흥원 최우수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2019년 12월에는 한국의 석탑을 기록한 〈탑-천년을 살면 무엇이 보일까〉를 출간했다. 박재완 기자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先學 궤적 따라 근대 불교·종교학 조명



주목! 학술서 – 불교와 함께한 종교 연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범재(凡哉) 이민용 선생<사진>은 불교학자이기도 하지만 종교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종교학의 자리에서 불교를 연구하며 불교학의 자리에서 종교를 학문적으로 조망해왔다. 현 학계에서 종교학과 불교학을 동시에 연구하는 인물이 없기에 그의 학문적 궤적은 불교·종교학계에서도 높게 평가된다.

이민용 이사장의 학문적 궤적에 중심에는 근대 불교학과 오리엔탈리즘의 관계에 대한 조명과 비판이 있다. 그는 '서구 불교학의 창안과 오리엔탈리즘', '근대불교·학의 형성과 아카데미즘에서의 위상' 등을 통해 근대 이후 발명된 학문 체계로서의 '불교학'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을 조명·비판했다.

또한 이민용 이사장은 서구인의 불교 수용과 그에 따른 '백인불교' '불교신학(Buddhist theology)' 같은 현상을 종교학적 시선으로도 꾸준히 분석해왔다. 이는 '학문의 이종교배- 왜 불교신학인가', '미국 속의 불교와 불교의 미국화', '서구불교 신행의 양태와 서구적 불교의 탄생' 등의 논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발간된 〈불교와 함께 한 종교연구〉는 불교학과 종교학의 가교를 놓은 학자인 이민용 이사장의 팔순을 기념하기 위해 후학 연구자들이 뜻을 모아 펴낸 것이다.

수록된 논고들의 주제는 이민용 이사장의 학문적 궤적과도 겹친다. 제1부 불교와 종교연구에는 한국 근대 불교의 탄생과 성격에 관한 논의들을 다룬다. 개항 이후 불교가 서구 근대성의 도전에 직면해 어떠한 고뇌의 몸짓을 펼쳤으며 그 과정에서 근대 종교로 새롭게 탄생한 불교는 어떤 성격과 특성을 지녔는지를 검토했다.

특히 논고 '조계종 전통의 창조와 혼종적 근대성(송현주)'을 통해서는 조선 불교 전통과 서구 근대 종교인 기독교, 그리고 경쟁자이자 모방 대상이기도 했던 일본 근대 불교가 한국 근대 불교의 탄생에 어떻게 개입하며 깊은 흔적을 남겼는가를 '전통의 발명(invention of tradition)'과 혼종성(hybridity) 개념을 통해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민용 이사장 팔순 기념해
후학들의 다양한 논고 담아
조계종단 형성, 불교잡지 등
한국불교 근대성 조명 '눈길'
종교학·불교 조망 논고들도

이와함께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불교 근대화와 잡지 미디어(조명제) △근대기 경산화파 화승 예운상규 불화 연구 △근대 전환기 민간 불교경험의 양태와 유산(민순의) △민주화 시대, 불교개혁운동과 그 한계(윤승용) △원효의 생사관(최유진) 등의 논고들을 통해 일제강점기 불교잡지의 흥망성쇠와 그 이면, 민주화시대 불교개혁운동의 역사 등을 알 수 있는 점도 이번 문집의 강점이다.

제2부는 그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려 종교학에서의 분류 체계, 종교 경전, 그림과 신화, 섹슈얼리티 문제 등에 관한 논고를 통해 종교 일반과 불교를 조망해냈다. 제3부는 이민용 이사장의 학문 인생을 회고하는 수상을 실어, 그의 학문 세계에 접근하는 길을 더욱 풍성하게 채웠다.

범재 팔순기념문집편찬위원회는 "이번 문집은 팔순을 맞은 범재 이민용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가르침에 힘입어 공부하고 연구해 온 학계 제자와 동학들이 그의 학문적 결을 따라 연구하고 공부해 온 성과를 모아서 엮었다"며 "한국 불교학과 종교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획 연구집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안심정사 등 포교 성공 요인은?

불교문예연구소, 4월 22일 학술 세미나

도심사찰·불교단체 분석
현대 포교 성공 모델 확인

8.15 광복과 6.25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산업사회로 접어들며 도시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된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었고, 종교 역시 도시인들을 대상으로 포교와 선교를 펼쳤다. 다른 종교보다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선교를 펼쳤던 개신교는 도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실제 개신교는 도시 곳곳에 수많은 대형교회들을 양산하며 그 세를 확장해 나갔다. 불교 역시 몇몇 선지식들을 중심으로 도심에서의 포교를 이어갔다.

대행 선사가 창건한 한마음선원은 안양에서 시작해 전국 및 세계에 지원을 둘 정도로 성장했으며, 태고종 안심정사는 '안심불교포럼' 등을 발족하며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심사찰이다. 이들 사찰의 포교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4월 22일 오후 1시 교내 호운관 강당에서 '불교의 현대적 포교와 성공 요인'을 주제로 춘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대 한국불교 포교사에서 한 획을 그은 불교단체와 도심사찰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정승안 동명대 자율전공학부 교수는 '만불화의 특징과 성공 요인'을 김보경 박사(계명대 사회학과)는 '정토회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발표한다. 이명호 경희대 종교시민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한마음선원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태고종 안심정사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민순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실장은 '대구관음회(대구불교대학)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각각 선보인다.

논평자로는 양정연 한림대 생사문화학 교수, 이종우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윤용복 아시아종교연구원장, 유승무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문예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차차석 불교문예연구소장은 "현재 불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아직도 현장에서의 포교는 전근대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한마음선원과 안심정사, 만불회 등은 도심을 중심으로 포교를 하거나 스님을 중심으로 신행 공동체를 구성해 불법을 성공적으로 홍포해왔다. 이들의 사례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 현대 포교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도량탑서 탑돌이를 하고 있는 신도들. 대행 선사가 창건한 한마음선원은 한국불교 포교사에서 손꼽히는 성공적인 모델 중 하나다.



지난 3월 6일 울진 산불을 피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이운됐던 보물 불영사 영산회상도가 3월 24일 본래자리인 불영사로 돌아왔다. 사진=문화재청

화마 피해 이운한 불영사 문화재 복귀

문화재청 3월 24일 이운해

울진 산불을 피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이운된 성보문화재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문화재청은 "동해안 산불에 따른 피해가 우려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긴급 이송했던 경북 울진 불영사 주요 문화재 3건 4점을 3월 24일 제자리로 옮겼다"고 밝혔다.

불영사로 귀환한 유물은 조선후기 불화 보물 영산회상도와 불교 의례용 가마 불연(佛輦), 경북유형문화재 신중탱화다.

이들 문화재는 지난 3월 6일 울진 산불이 거세지자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이운했다.

신성민 기자

국립춘천博, 17기 박물관문화대학 운영

국립춘천박물관이 '2022년 제17기 박물관문화대학'을 운영한다.

'특별전으로 다시 읽는 박물관 스무 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물관문화대학은 국립춘천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한 박물관의 지나온 시간을 살핀다.

역사·문화·예술 분야 전문 강사가 참여해 인문·예술 분야 소양을 높이고 강원의 문화 이해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다. 일정은 5월26일 개강해 11월3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다. 1부 '역사를 담는 박물관'에서는 박물관 속 강원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다. 이어 2부 '휴식이 되는 박물관'은 강원의 자연과 아름다움, 휴식 공간으로서의 박물관 역할을 짚어보고, 3부 '브랜드가 되는 박물관'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박물관이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대를 모색한다.

4월 12일부터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강생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박물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033)260-1522 신성민 기자

문화유산회복재단 '북계집' 국내 환수

문화유산회복재단(이사장 이상근)은 "국외 문화재 조사 중 20여 년 전 프랑스인이 취득해 소장하고 있던 조용석의 시문집인 〈북계집(北溪集)〉 목판 5, 6판을 발견하고 도난문화재임을 확인해 국내 환수 조치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3월 21일 환수된 목판은 총 41판(표지 포함) 중 하나이며, 문화유산회복재단은 추가 조사와 소장자 협조를 통해 전체 판본의 환수를 추진 중이다.

〈북계집〉의 저자 조용석은 자는 천응(天應), 호가 북계(北溪)이며,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경상북도 영천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목판을 사진으로 판독한 문화유산연구소 '길'의 기호철 소장은 "목판은 진본(眞本)"이라며 "목판과 출간된 문집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목판 사진을 좌우 반전으로 뒤집어서 대조하면 자획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반출 문화재의 환수를 위해 재외 동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외 문화재 조사와 환수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외지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등 8개 국가, 11곳이다.

신성민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0



▶ 61회 예고
마침내 아쇼까는 병석에 누운 빈두사라왕에게 왕권을 위임받는다. 다만, 수시마가 왕궁에 도착할 때까지이다. 그러나 수시마는 빠딸리뿌뜨라로 오다가 독살당한다. 이에 수시마 부왕비는 갓난아기 니그로다를 안고 천민촌으로 도망간다.

친위대 조장, 수시마를 독살하다

친위대 군사들이 강변에 임시군막을 설치했다. 수시마 부왕과 꾸날라 왕세자가 하룻밤 묵을 임시군막이었다. 친위대 조장이 요리담당관을 불렀다. 요리담당관은 궁중요리사들 중에서 차출한 친위대 조장이 아끼는 사람이었다. 콧수염을 길러 나이 들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른 살을 갓 넘긴 요리사였다. 친위대 조장이 말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은 특식으로 준비하게."

"알겠습니다. 마침 이곳으로 오다가 군사들이 잡은 공작새 두 마리가 있습니다."

"부왕님과 꾸날라 왕세자님은 공작새 요리를 올리고, 군사들은 새끼 말을 잡아 배불리 먹이게."

친위대 기병들이 타고 온 어미 말이 탁실라에 머무는 동안 낳은 새끼 말이었다. 친위대 조장은 새끼 말을 빠딸리뿌뜨라까지 몰고 갈 생각은 없었다. 가는 길에 잡아서 특식으로 요리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요리담당관은 임시군막 가까이에 있는 경계 군사들을 불러 요리를 서둘러 시작했다.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떨어지기 전에 공작새와 새끼 말을 잡아야 했다. 공작새는 경계 군사 한 명이 강가에서 털을 뽑았고, 수건으로 눈을 가린 새끼 말은 군사 서너 명이 모래밭 멀리 끌고 가더니 도끼를 든 군사가 새끼 말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솥단지를 걸고 장작에 불이 붙자, 강변은 야외 요리장으로 변했다. 솥에서는 말고기가 삶아지고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다. 공작새는 요리담당관이 따로 정성들여 요리했다. 말고기와 달리 털이 뽑힌 공작새를 통째로 화톳불에 구웠다. 뜨거운 불길에 기름이 지글거리고 연기가 스며들면서 공작새 훈제구이가 담백하게 만들어졌다. 임시 화덕에서는 짜파티가 노르스름하게 부풀었다. 친위대 조장은 요리 현장을 둘러보면서 특사의 말을 떠올렸다.

'부왕님을 마지막까지 잘 모시시오. 마음이 아프지만 마우리아왕국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소. 장례는 예를 정중히 갖추어 지내주시오.'

수시마 부왕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러자 군사 한 명이 재빨리 손 씻는 물을 떠와 바쳤다. 친위대 조장이 수시마 부왕에게 다가가서 보고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는 특식을 준비하여 군사들 사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오. 덕분에 나도 특별한 요리를 먹는 것 아니오?"

"오늘 저녁에는 공작새 훈제구이, 내일 아침에는 공작새 커리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꾸날라 조카가 좋아하겠군."

"공작새 훈제구이는 대왕님께서 품평하셨던 방식으로 만든 요리입니다. 요리담당관은 궁중요리사 출신이니까요."

"아,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던 공작새 훈제구이를 여기서 먹게 되다니 정말로 기대가 크오."

수시마 부왕이 임시군막으로 들어가자 친위대 조장은 요리담당관을 격려했다.

"부왕님께서 그대의 요리를 기대하시고 있소."

"야생 공작새이기 때문에 고기가 싱겁고 질길지 모릅니다. 그것이 걱정입니다."

"싱거우면 소금을 뿌리고 질길지 모른다면 센 불에 살짝만 굽게."

이윽고 공작새 훈제구이와 짜파티 2인분이 친위대 조장의 눈을 거쳐 임시군막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요리담당관이 수시마 부왕에게 칭찬을 받았는지 어깨를 으쓱하며 나왔다.

"요리담당관, 부왕님께서 만족하시든가?"

"공작새 훈제구이를 한 번 맛보시더니 빠딸리뿌뜨라에 가면 저를 우두머리 궁중요리사로 추천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축하하네. 꾸날라 왕세자님은?"

"맛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리담당관은 후식을 준비한다며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잠시 후 꾸날라가 임시군막에서 나와 말했다.

"백부님께서 공작새 훈제구이를 드시면서 하늘의 신들이 먹는 요리가 이럴 거라고 했어요. 짜파티를 네 장이나 먹었더니 배불러요. 저도 산책 좀 하고 올게요."

"멀리 가지 마십시오. 후식이 곧 올 겁니다."

새끼 말을 잡은 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강바람에 피비린내 같은 것이 실려 오는 듯했다. 석양이 진 서쪽하늘의 붉은 놀은 시나브로 검붉게 변하고 있었다. 그제야 친위대 조장은 긴장했다.

'아, 내 임무를 깜박 잊고 있었구나!'

두말 할 것도 없이 친위대 조장의 임무는 수시마 부왕을 독살하는 것이었다. 그때, 요리담당관이 짜이 두 잔과 바나나와 포도가 든 은쟁반을 들고 왔다. 친위대 조장이 임시군막으로 들어가는 그를 막았다.

"놓고 가게. 꾸날라 왕세자님이 들고 가시게. 부왕님께서 옷을 갈아입고 계시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군사들이 말고기 요리를 먹고 있는 곳으로 가 있겠습니다."

"꾸날라 왕세자님만 오시면 나도 그곳으로 가겠네."

친위대 조장은 품속에서 독약을 꺼냈다. 그런데 두 잔의 짜이 중에 어느 잔에 독약을 넣을지 망설여졌다. 실수하면 꾸날라가 독약이 든 짜이를 마실 수도 있었다. 수시마 부왕이 살고 꾸날라가 죽는다면 자신은 빠딸리뿌뜨라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었다.

'내일로 미룰까? 그건 안 되지. 좋은 기회는 언제나 단 한 번뿐이었어.'

친위대 조장은 짜이 두 잔을 놓고 당황했다. 어느 잔에 독약을 넣을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때 꾸날라가 콧노래를 부르며 다가왔다.

"후식이군요. 내가 가지고 들어갈게요."



"왕세자님, 짜이 맛이 어떤지 먼저 보시겠습니까?"

꾸날라가 아무 의심 없이 짜이 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다. 친위대 조장은 그 순간 다른 짜이 잔에 독약을 넣으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 기회를 놓쳐버렸다. 꾸날라가 말했다.

"염소젖 맛이 나는군요. 탁실라에서 많이 마셔본 짜이에요."

"아, 네. 빠딸리뿌뜨라로 가시면 소젖으로 끓인 고급 짜이를 마실 수 있으실 겁니다."

친위대 조장은 군사 두 명에게 임시군막의 경계를 맡기고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군사들은 화톳불을 피워놓고 교대해 가면서 저녁 특식을 먹고 있었다. 요리담당관이 말했다.

"조장님, 저녁을 드십시오. 말고기 가슴살 구이를 남겨 놓았습니다."

"난 생각이 없네. 내일 부왕님 식사는 뭔가?"

"공작새 커리입니다. 추운 아침에는 뜨거운 스프를 드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왕님 그릇은 준비해 두었는가?"

"예, 탁실라에서 가져온 동제 그릇이 있습니다."

"부왕님께는 늘 예를 갖추도록 하게."

"예, 조장님께서 음식을 확인하신 뒤 임시군막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친위대 조장은 임시군막 옆으로 돌아와 화톳불을 피웠다. 경계를 서는 군사 두 명이 친위대 조장의 눈치를 보며 화톳불을 쬐곤 했다.

다음날. 짙은 안개가 끼어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이른 아침이었다. 군사 두 명이 수시마 부왕과 꾸날라의 아침음식을 들고 왔다. 군사 한 명이 말했다.

"조장님께 먼저 보이고 임시군막 안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임시군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요리담당관을 불러오라."

"요리담당관께서 갑자기 배탈이 나서 저희들이 왔습니다만 지시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두 명의 군사는 곧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친위대 조장은 동제 그릇을 보자마자 수시마 부왕의 아침음식이라고 직감했다. 꾸날라의 그릇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토기였다. 놀랍게도 친위대 조장은 태연했다. 품속에서 달콤한 독약을 꺼내 아무렇지 않게 공작새 탕에 넣었다. 그때 요리담당관이 허둥지둥 나타났다.

"죄송합니다."

"괜찮네. 아침음식을 가지고 들어가게."

친위대 조장은 임시군막 보초군사에게 경계를 잘 서도록 지시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안개 속에서 밤새 경계를 선 군사들이 화톳불을 피워놓고 몸을 말리고 있는 곳으로 갔다.

"밤새 추위에 떨었으니 뜨거운 말고기 커리를 실컷 마셔라. 여기서 배불리 먹고 출발하자."

"예, 조장님."

마침내 군사들이 모두 모여 솥 안의 말고기 커리와 짜파티를 다 먹어치웠다. 그런데 그때 짙은 안개 속에서 요리담당관이 뛰어와 소리쳤다.

"조장님! 부왕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천천히 말해 보게."

"꾸날라 왕세자님이 울면서 임시군막을 뛰어나와서 들어가 보니 부왕님께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친위대 조장과 군사들은 임시군막으로 달려갔다. 꾸날라가 임시군막 밖에서 울고 있었다. 친위대 조장을 본 꾸날라가 울먹였다.

"백부님이 음식을 드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꼼짝을 안 해요."

군사들이 크게 술렁였다. 수시마 부왕을 안전하게 호위하지 못한 죄를 지었으니 모두 극형에 처해질 터였다. 친위대 조장은 동요를 막기 위해 명했다.

"부왕님께서 드신 음식은 공작새 훈제구이와 커리다. 이 음식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너희들은 죄가 없다. 책임이 있다면 나와 요리담당관이다."

"조장님은 죄가 없습니다. 부왕님께서 요리를 드시고 급체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부왕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따져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다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는다. 우리가 할 일은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일이다."

친위대 조장이 단호하게 말하자, 웅성거림이 수그러들었다. 꾸날라도 울음을 멈추었다. 시신은 빠딸리뿌뜨라까지 운반할 수 없었다. 가는 도중에 시신이 부패하여 악취를 풍길 것이기 때문이었다. 친위대 조장 판단대로 시신을 화장하는 것이 군사들의 할 일이었다. 군사들은 화장할 나무를 구하러 흩어졌다. 그제야 요리담당관이 친위대 조장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조장님, 공작새 날카로운 뼈가 부왕님의 장기를 찌른 것 같습니다. 뼈를 걸러내지 못한 저를 처벌해주십시오. 죽여서 강에 던져주십시오."

"우리가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갈 때까지 음식을 책임진 요리사이니 그럴 수 없네."

꾸날라가 한 마디 했다.

"조장님, 공작새 뼈를 삼키면 정말 죽기도 합니까?"

"왕세자님,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개가 강 너머로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다. 군사들이 강변에 생나무와 마른 나뭇가지를 모았다. 한 나절은 타고도 남을 나뭇단이 쌓였다. 친위대 조장은 수시마 부왕을 나뭇단 위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그런 뒤 바로 망설이지 않고 불을 질렀다. 친위대 조장은 군사 네 명에게 지시했다.

"우리는 꾸날라 왕세자님을 모시고 사왓티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부왕님께서 남긴 재를 강물에 뿌려 시바신에게 바치고 오너라."

친위대 조장은 충격 받은 꾸날라를 위해 가능한 한 그곳을 빨리 벗어나려고 했다. 불에 타는 수시마 부왕을 지켜본 뒤 떠나고 싶었지만 꾸날라를 위해 그랬다.〈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❼ 승조(僧肇)



▶ 한줄 요약
구마라집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은 바로 승조로, 중국반야학과 전체적인 중국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격의’ 벗어나게 한 중국 반야학 비조

〈鼻祖〉



승조는 당시에 번역된 〈유마경〉을 보고는 “비로소 귀의할 바를 알았다”며 출가했다. 사진은 7세기 일본의 쇼토쿠 다이시가 〈유마경(維摩經)〉에 주석을 단 것을 근대에 간행한 〈유마경의소〉. 출처=국립중앙박물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불교는 사상적으로 크게 일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구마라집의 역경(譯經)과 강설(講說)이 뛰어난 덕분이지만, 그의 문하에 승조와 도생(道生) 같은 뛰어난 제자들의 작용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중국불교의 사상사(思想史)에서 불교의 흐름을 바꾼 불세출의 존숙(尊宿)들 가운데 그에 호응하는 제자들을 못 만나서 그 명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구마라집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은 바로 승조(374, 378, 혹은 384 ~ 414)이다. 승조의 생몰연대는 그와 관련된 자료에 나타난 모호한 표현으로 인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출현하였다. 그렇지만 승조가 의희(義熙) 10년(414) 장안(長安)에서 입적한 것은 대부분의 자료에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출생연대를 최대한으로 하여도 41세이며, 〈고승전〉에서는 31세에 입적하였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승조의 짧은 생애에 대하여 후대에 너무 뛰어나 대중들로부터 시기를 받아 요흥(姚興)에게 무고하여 사형을 당했다는 전설이 출현하였고, 특히 〈경덕전등록〉 권27에는 사형에 임하여 승조가 작성했다는 게송까지 실려 있다. 그러나 당시의 여러 자료를 통한 정황상 승조가 사형 당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후대에 승조의 이름을 가탁한 위서(僞書)들이 출현하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설이라고 평가된다.

〈고승전〉에 실린 그의 전기에 따르면, 승조의 집안은 가난하여 책을 베껴주는 일을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등을 모두 열람할 수 있었으며, 특히 〈노자〉와 〈장자〉를 심요(心要)로 삼았다고 한다. 이는 당시의 시대사조가 현학(玄學)이었던 까닭도 있었다고 하겠다. 특히 현학에서는 〈노자〉, 〈장자〉, 〈주역〉을 ‘삼현(三玄)’으로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조는 당시에 번역된 〈유마경〉을 보고는 “비로소 귀의할 바를 알았다”며 출가하였다. 출가한 이후, 대승경전을 비롯한 삼장(三藏)에 대한 이해가 깊어 널리 이름을 알렸으며, 특히 담론(談論)에 뛰어났다고 한다.

당시 구마라집이 여광(呂光)에 의하여 고장(姑藏)에 억류되어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그 명성은 장안에까지 알려졌다. 그에 따라 승조는 고장으로 찾아가 구마라집으로부터 법을 사사받았으며, 홍시(弘始) 3년(401) 요흥이 군대를 파견하여 구마라집을 장안으로 모셔올 때 함께 들어왔다. 그러자 요흥은 승조에게 명하여 승예(僧叡) 등과 함께 소요원(逍遙園)에 들게 하여 구마라집의 역경(譯經)에 참여하여 하였다. 〈대품반야경〉을 번역한 이후에 〈반야무지론(般若無知論)〉을 찬술하자 구마라집으로부터 찬탄을 받았으며, 이 책은 여산(廬山) 혜원(慧遠)의 문하에도 전해져 혜원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또한 여산에 은거하고 있던 유유민(劉遺民)도 감탄하여 편지를 보냈고, 그에 대한 답장을 쓴 〈답유유민서(答劉遺民書)〉가 〈조론(肇論)〉에 실려 있다.

이후 구마라집이 홍시 15년(413)에 입적하자 조서(弔書)인 〈구마라집뢰(鳩摩羅什誄)〉(〈廣弘明集〉卷23 所收)를 찬술하고, 이후 〈열반무명론(涅槃無名論)〉 등을 찬술하였으며, 다음 해인 홍시 16년, 동진(東晋)의 연호로는 의희 10년(414)에 입적하였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승조는 평소에 병약했던 것으로 기록되는데, 따라서 스승인 구마라집이 입적하자 그 영향으로 병사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승조는 31세(혹은 35, 41세)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가 남긴 저술들은 중국불교의 사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승조의 저술은 구마라집이 번역을 완성한 후에 ‘서’를 찬술한 〈백론서(百論序)〉, 〈유마힐경서(維摩詰經序)〉, 〈사분율서(四分律序)〉 등이 있고, 〈유마경〉에 대하여 자신의 주석과 구마라집, 도생의 주석을 합한 〈주유마힐경(注維摩詰經)〉이 존재한다. 그리고 〈반야무지론〉, 〈부진공론(不眞空論)〉, 〈물불천론(物不遷論)〉, 〈답유유민서〉, 〈열반무명론〉 등이 있는데, 후대에 어떤 이가 〈종본의(宗本義)〉를 찬술하여 이를 모아 〈조론(肇論)〉으로 출판하였다. 이외에 자신의 입적 직전에 요흥에게 올린 〈상진왕표(上秦王表)〉가 전한다.

이로부터 보자면, 승조의 저술들은 그리 많지 않으며, 중요한 저술은 바로 〈주유마힐경〉과 〈조론〉에 실린 작품들이라고 하겠다. 그 가운데 〈조론〉에 실린 작품들은 모두 짧은 글들이지만, 도리어 중국반야학과 전체적인 중국사상에 미친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고, 후대에 성립한 조사선(祖師禪)에서 상용되는 개념들을 대량으로 논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중국의 학계에서는 승조의 반야학을 “서역의 중관학과 중국 노장사상의 결합”이라고 평가한다. 그것은 길지 않은 〈조론〉에는 〈노자〉 혹은 〈장자〉의 구절을 모두 97차례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는 여전히 현학이 시대사조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 찬술된 다른 저술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표현방법이다. 또한 승조의 〈조론〉 이외의 저술에는 이러한 표현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조론〉에 나타난 표현방법은 바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목적은 당연히 당시 주류였던 현학을 겨냥한 것이고, 또한 그 현학을 원용하고 있던 ‘격의불교(格義佛教)’를 논파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겠다.

> 도생과 함께 구마라집 대표하는 제자
> 〈유마경〉을 보고 귀의처 찾고 출가해
> 31세 짧은생애를 살았지만 남긴 저술
> 중국불교 사상에 절대적인 영향 끼쳐

특히 〈부진공론〉에서는 당시 격의불교의 대표적인 본무종(本無宗), 즉색종(卽色宗), 심무종(心無宗)의 세 가지 부류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를 모두 논하기에는 짧은 지면에 가능하지 않지만, 가장 대표적인 본무종에 대한 비판을 예를 들어 최대한 간결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사실상 현학은 반야의 ‘유무(有無)’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단정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유’와 ‘무’에 대하여 치밀한 논증의 과정을 거친다. 특히 현학을 창도한 왕필(王弼)은 ‘무’를 중심으로 한 ‘체용(體用)’으로 전개하여 ‘귀무론(貴無論)’ 혹은 ‘본무론(本無論)’이라고 칭하는데, 도안(道安)을 대표로 하는 ‘본무종’에서는 역시 왕필의 논리를 원용하고 있음을 여실하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부진공론〉에서는 “깊게 무(無)를 숭상하여, 말끝마다 ‘무’를 귀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비유(非有)는 유(有)가 바로 무(無)요, 비무(非無)는 ‘무’가 바로 ‘무’라고 한다. 이러한 문(文)의 본지(本旨)를 세운 것을 살펴보면, 바로 ‘비유’로써 비진유(非眞有)로 삼고, ‘비무’로써 비진무(非眞無)로 삼은 것일 뿐이다. 어찌 ‘비유’에 있어서 ‘유’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비무’에 있어서 ‘무’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이는 바로 ‘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논함이지, 어찌 사실에 따르고 통한 즉물(卽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한다. 상당히 어려운 논리이지만 간략하게 말하자면, ‘비유’의 의미는 비록 ‘유’를 부정하여도 ‘진유(眞有)’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요, ‘비무’의 의미는 비록 ‘무’를 부정하여도 ‘진무(眞無)’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승조가 논증하는 ‘반야’의 묘미를 찾을 수 있는데, 본무종은 ‘무’에 치우쳐 ‘유무쌍견(有無雙遣)’을 거쳐 ‘진속원융(眞俗圓融)’에 이르지 못함을 비판하고 있다. ‘즉색종’과 ‘심무종’에 대한 비판도 이러한 논리를 따르고 있다.

반야사상의 입장에서 보자면, ‘생사’와 ‘열반’의 세계는 다만 상대적인 개념이며, 만약 열반의 세계를 절대화한다고 한다면 생사의 세계 역시 절대화해야 하는 논리적 곤궁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 양변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호상관대(互相觀待)’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른바 반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사의 세계가 ‘상(相)’이라면 그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열반 역시도 ‘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생사’와 ‘열반’, ‘번뇌’와 ‘보리’, 그리고 ‘중생’과 ‘불(佛)’은 모두 ‘즉(卽)’의 관계라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상’을 떠난 궁극적 경지를 결코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열반’에 대한 관념을 수정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열반’의 관념을 그대로 두고 그 내용을 ‘반야’의 입장에서 지양(止揚)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른바 대승의 ‘열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승조는 〈열반무명론〉을 찬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승조는 〈열반무명론〉에서 “열반은 비유(非有)이고, 또한 비무(非無)로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의 갈 곳이 사라졌다.[言語道斷, 心行處滅.]”고 한다. 이는 상당히 유명한 구절이며, 특히 “언어도단, 심행처멸”은 후대에 조사선에서 상용하는 문구이다. 여기에서 열반을 바로 ‘비유비무’의 입장에서 논증하고 있음이 여실하게 엿보인다.

사실상 승조의 가장 뛰어난 업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비유비무’를 철저하게 논증했다는 점이다. 현학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곽상(郭象)은 즉유즉무(卽有卽無)를 통한 독화론(獨化論)으로 ‘내성외왕(內聖外王)’의 논리를 완성하는데, 승조는 ‘비유비무’의 논증을 통하여 그를 철저히 비판하여 논파하였고, 또한 ‘비유비무’의 입장에서 대승의 ‘열반’을 논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적으로 승조 이후에는 더 이상 현학이 시대사조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으며, ‘격의불교’ 또한 점차 사라져버렸다. 그에 따라 승조를 ‘현학의 종결자’, ‘격의’를 벗어나게 한 ‘중국반야학의 비조(鼻祖)’라고도 칭한다. 또한 〈조론〉에는 ‘촉사이진(觸事而眞)’, ‘물아동근(物我同根)’, ‘물아일체(物我一體)’, ‘체용불이(體用不二)’, ‘입처즉진(入處卽眞)’, ‘용적체일(用寂體一)’ 등의 용어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이후의 불교에서 중요한 논제가 되었으며, 거의 5백년 뒤에 출현한 중국불교의 귀숙(歸宿)인 조사선에서 즐겨 쓰는 용어들이 되었고, 나아가 유교와 도교에도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이로부터 승조의 시대를 뛰어넘는 탁견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⑦ 열반변상도



▶ 한줄 요약
붓다의 열반을 그린 열반도는 막고굴 등의 석굴에서 자주 확인된다. 돈황 막고굴 최초의 열반도는 제428굴에 있다. 해당 도상의 붓다는 바로 누워 열반하지만 후대로 가면 붓다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것처럼 열반한다. 이는 범부의 죽음처럼 보여 열반의 모습이 변화된 듯 보인다.

바로 누었던 열반도, 옆으로 누운 이유는

붓다는 진리를 찾아 왕자의 자리도 버리고 출가하여 오랜 고행 끝에 지혜의 눈을 뜨시고 그후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하면서 자비를 구현하셨다. 그러면서 80세에 으르셨는데 어느 날 쿠시나가라(Kusinagara)에 도착하시어 아난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나는 지금 몹시 피곤해 눕고 싶다. 저기 사라수 아래 가사를 네 겹으로 깔아다오. 나는 오늘 밤 여기서 열반(涅槃)에 들겠다." –〈불교성전〉 83p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를 북쪽에 두고 얼굴은 서쪽을 향하며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운 자세로 열반에 드셨다. 열반이란 범어 'nirvana'의 음역으로 반열반(般涅槃, parinivana)라고도 하며 멸도(滅度)라고 한역한다. 그러므로 열반에 든다고 하는 것을 멸도에 든다고도 하며 입멸(入滅)이라고도 말한다.

원래 열반의 의미는 타고 있는 불을 바람이 불어와 끄는 것, 혹은 꺼져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서 일체의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열반의 의미가 이러하듯, 붓다의 열반이 아무리 적정하고 고요하며 평온한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세계라 미화할지라도 그것은 곧 인간 싯달타가 80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마감하는 '죽음'인 것이다.

이 '죽음' 앞에서, 붓다는 아무리 열반에 드셨다 해도 중생은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붓다의 열반이 세상에 알려지자 모든 중생이 이것을 보고 듣자, 크게 걱정하고 근심하여 한꺼번에 소리를 높여 슬피 울부짖고 "아아, 어지신 아버지여, 애통하고 안타깝습니다"하며, 손을 들어 머리를 쥐어박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크게 외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온몸을 떨며 눈물 짓고 혹은 흐느끼기도 하였다.

이때 땅과 산과 바다가 모두 지동(地震)하는데, 중생들은 서로 붙들고 위로하며 저마다 슬픔을 억제하면서 말하였다.

"너무 슬퍼하지만 말고 어서들 쿠시나가르로 가서 붓다를 뵙고 열반에 드시지 말고 한 겁 동안이나, 아니면 한 겁이 조금 모자라는 동안만이라도 이 세상에 좀 더 머물러 주시길 간청해 봅시다." – 이운허 옮김, 〈열반경〉1 2p

이와 같은 붓다의 열반, 이생을 마감하는 붓다의 최후의 모습을 보고 중생들이 슬퍼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열반도'이다.

우리나라에는 단독적인 '열반도'나 '열반상'을 모시고 있는 사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붓다의 일대기인 '팔상도' 중의 '쌍림열반상'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 법륭사(法隆寺) 5층탑 1층에 모셔진 8세기 소조(塑造) 열반상(涅槃相) 군상(群像)이 규모나 표현성에서 유명하다.

중국 돈황 막고굴 벽화에는 많은 양의 변상도가 그려졌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각 시대 마다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어 미술사뿐만 아니라 문화사 혹은 사회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열반도는 2세기 인도 간다라 미술에서 처음 출현하였으며 중국 내에서는 최고 오래된 것으로 연운항(連云港)의 공망산(孔望山) 마애상과 신장(新疆)의 키질 석굴에서 볼 수 있다.

막고굴의 현존하는 최초의 열반도는 북주(北周)시대의 것으로 제428굴의 서쪽 벽면의 북쪽 벽화로, 탄생, 항마, 설법도와 결합되어 그려져 있다. 침대에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고 누운 붓다의 몸에는 두광과 신광이 있는데, 빛을 화염 문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통견 가사를 입고, 네모난 베개를 베고 있으며 화면 맨 위에는 흰 꽃이 핀 네그루의 사라수(娑羅樹)가 있고 그 아래에는 흰 옷을 입은 11명의 평범한 인물이 눈살을 찌푸리며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왼쪽의 두 번째와 오른쪽의 첫 번째 인물은 측면상으로 콧대가 높게 그려졌으며, 옷차림과 두광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음의 제자들과는 구별되며 혹 애도하러 온 말라족(Mallas) 인물인지도 모른다. 붓다의 머리맡에 있는 비구와 발 옆에 있는 대가섭을 제외한 열두 제자는 모두 두광이 있으며 두 손을 모아 합장하거나 가슴에 대고 애통한 모습을 하고 있다. 화면은 두꺼운 색채로 덥혀있으며 거친 선으로 인물의 형상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처리하고 있다. 수대에는 붓다의 발에 예배하는 가섭존자, 마지막 제자 수밧다, 금강역사, 새와 동물, 천신과 보살을 비롯해 여래형의 인물도 등장하는 등 등장인물의 수가 이전 시기에 비해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

제428굴 열반도는 비구와 애도하는 말라족만 보이고, 천산이나 보살은 보이지 않고 있어 아직 불전도로서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7세기에 들어와서 제332굴이 조성된 698년경까지 약80여 년간 돈황석굴에는 50여 점의 〈열반경〉 사본(寫本)이 장경동에서 발견되었는데, 대부분이 북조에서 수(隋) 말기 경에 제작된 것들이다. 그후 사본수는 감소했지만 7세기 말에서 8세기에 거쳐 담무참이 번역한 〈대반열반경〉을 요약한 절초본(節抄本)이 많이 서사(書寫)됐던 것으로 보인다.

수나라 시대에 이르러 막고굴 열반도의 수가 급증했고, 불전도 중의 하나인 열반도에서 단폭 형식의 열반변상도로 일거에 바뀌었다. 막고굴 제420굴과 제295굴의 열반도가 그런 경우이다. 붓다의 누워있는 자세가 달라졌는데, 이전 북주 시대의 하늘을 향해 반듯이 누운 자세는 평민의 죽음처럼 보여 '열반'의 의미와 맞지 않아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간다라와 바미안 양식에서 보이는 오른팔을 접어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옆으로 누운 자세를 차용하고 있는데, 마치 숙면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붓다가 수십 년간의 고행 끝에 마침내 생로병사의 윤회를 벗어나 영원히 즐겁고 평안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제420굴 상부의 북측 가운데 열반상은 밀집 형태의 구도로 그려졌으며 장방형 침대에 옆으로 누워있는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보살들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는 누각과 사라수가 있으며 불길이 솟구치고 있다.

제295굴의 열반도는 붓다가 붉은 가사를 입고 있으며 머리맡에 보살형의 인물이 앉아있는데 연화좌에 발을 디디고 있으며, 붉은 가사를 입고 머리에는 보석 장식을 하고 있다. 이 변상도는 앞의 변상도와는 달리 사물의 외곽을 가는 필묵 선(線)으로 표현하고 그 안을 색으로 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이 시기보다 좀 앞선 530년경에 사혁(謝赫)이 제창한 논화육법(論畵六法) 중의 골법용필(骨法用筆; 붓으로 선을 긋다), 수류부채(隨類賦彩; 대상에 따라 색을 칠한다)의 방법을 따르고 있음이다. 이는 서역에서 들어온 요철법(凹凸法) 혹은 음영법(陰影法)이라 불리던 불교 회화양식이 이 시기에 이르러 중국 전통 필묘법(筆描法)의 회화 양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428굴의 인물 표현을 보면 거칠고 투박한 선과 두터운 채색을 통하여 입체적 효과를 주고 있는 반면 제295굴은 인물의 묘사를 가늘고 유연한 모필선으로 처리하고 거기에 채색을 옅게 함으로서 선묘의 효과를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회화는 선묘를 위주로 변화 발전하였으며 이것이 이후 동아시아 회화의 근간이 되었다.

그래서 불교회화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필히 선묘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요구됨으로 여기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원래 초기 인물화에서의 선을 철선(鐵線描; 철사줄처럼 가늘고 뻗뻗한 선)이라 하며, 이것이 육조시대 고개지(顧愷之, 345~406)에 이르러 춘잠토사선(春蠶吐絲線; 봄 누에가 실을 토하듯 한 유연한 선)으로 바뀌었다. 제295굴의 인물 외곽선이나 의문선(衣文線)이 이와 유사하다.

당대(唐代)의 오도자(吳道子, ?~792) 이르러 다시 한번 변하는데, 이를 오대당풍(吳帶當風) 혹은 난엽선(蘭葉線; 난초를 그리 듯 선의 강약 변화가 있는 것)이라 하며 이후 중국의 송, 원, 명, 청이나 우리나라 고려, 조선의 불화에서도 이 선을 추종하였다.

또 다른 독특한 인물화의 선묘로는 제428굴에서 보여지는 붓다의 가사 표현으로 마치 일렁이는 물결을 그리듯이 가는 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해 그리는 방식이다. 이런 표현방식은 불교미술 도입 초기 삼국시대 조불흥(曺不興, 222~280)이 즐겨 사용하였음으로 이를 조의출수(曺衣出水)라고 하는데, 이는 인도의 복장 형태 즉, 엷은 천을 몸에 휘감음으로써 생기는 많은 옷 주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인도 초기 불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표현방식이다. 통일국가를 이룬 수대의 열반도는 서방적인 간다라 도상에 보다 가까워졌으며, 중국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그림①. 돈황 막고굴 제428굴 열반변상도. 북주시대 조성됐다. 붓다가 바로 누워서 열반하는 모습이 표현됐는데, 이는 후대로 가며 옆으로 누운 모습으로 변화한다.

막고굴 최초 열반도 428굴서 확인
북주시대 조성… 바로 누워서 열반
옆으로 누운 열반도는 수代 그려져
범부의 죽음처럼 보여서 변화된 듯
열반변상도, 中필묘법 변천사 확인
당시 사회상 반영, 문화 연구 도움



그림②. 돈황 막고굴 제295굴 열반변상도. 수나라 시기 조성됐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Monthly Bultube

뉴미디어 시대, 수많은 불교단체와 스님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 콘텐츠의 범람 속에 묻혀있는 콘텐츠들이 많다. 무엇을 보아야 할지 모르는 이들을 위한 유튜브 리뷰를 시작한다. 유튜브 불교 콘텐츠를 찾아 오늘도 헤메는 불자들을 위한 유튜브 가이드가 되길 바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 행

BTN 유튜브 채널, '탤런트 강부자가 아침마다 천수경을 듣는 이유'

불자 탤런트인 강부자 씨는 독실한 불자다. 이러한 강부자 씨의 신행담은 많은 불자들에게 같은 불자로서 동질감과 함께 감동을 주곤 한다. BTN불교tv에서는 강부자 씨의 다양한 신행담을 다룬 방송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짧은 유튜브 콘텐츠인 유튜브 쇼츠(Shorts)에도 이러한 신행담을 편집해 업로드한다.

2월 27일 BTN불교tv가 업로드한 '탤런트 강부자가 아침마다 천수경을 듣는 이유'는 24만 5000명이 지켜봤다. 쇼츠 콘텐츠가 보편화되지 않은 불교계 뉴미디어 상황에서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

강부자 씨는 영상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이 다 들리게 천수경을 틀어놓는다. 아침 예불을 하고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한다. 차에서는 염주를 돌리며 기도한다"며 "모든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능력에 맞게 순리대로 되게 해달라고 한다. 잘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다"고 강조한다.

이를 본 이들은 "항상 마음을 비우고 사는 지혜 대단하다", "능력에 맞고 순리대로 사는게 지혜롭다" 등의 댓글을 남겼고 4200명이 '좋아요'를 남겼다.

youtube.com/shorts/iEmFLk2ks6E

강 연

BTN 유튜브 채널, '광우 스님의 소나무'

코로나 시기 오프라인 강연장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유튜브를 통한 불교강연 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 BTN불교tv의 인기 프로그램인 '광우 스님의 소나무'는 유튜브 내에서도 불교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소나무는 '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의 줄임말로 화계사불교대학 교무인 광우 스님은 뉴미디어 설법사로 우리 삶 속의 다양한 사연에 대해 즉문즉답한다.

올해 2월 25일 몰아보기 방식으로 업로드된 '평소에 마음을 잘써야 하는 이유'는 28만 4526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7200여명이 좋아요를 남겼다.

최근 유튜브 시청은 '몰아보기' '빠른속도 보기'가 보편화되고 있다. 총 2시간 6분 분량이지만 회차를 나누지 않기에 1.5배속 등으로 쾌적하게 전체 법문을 들을 수 있다.



일당백 채널, '불교가 좋다'

BBS 유튜브 채널, '법정 스님 2006년 봄 법문'



BTN 유튜브 채널, '탤런트 강부자가 아침마다 천수경을 듣는 이유'



BTN 유튜브 채널, '광우 스님의 소나무'



간다효 채널, 도대체 티베트불교는 무슨 종교일까?

광우 스님의 소나무 특징은 방청객들과 함께 소통하며 진행하는 것이다.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행복하고 싶은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는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강조한다. 댓글에서는 "저는 스님 말씀 듣고 한번 웃었다. 스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니 귀담아 듣게 된다",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큰 복을 얻는다". "스님이 법문을 재미있게 잘 풀어 얘기해 주시니 이해도 잘되고 깊은 깨달음이 마음에 느껴진다" 등의 댓글이 남겨졌다.

youtu.be/s1M9yZ1Bbz4

법 문

BBS 유튜브 채널, '법정 스님 2006년 봄 법문'

아아...그리운 큰 스님. 계절이 바뀔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건 옛 연인만이 아니다. 불자들은 인연이 닿은 스님들의 생전 모습을 한번씩 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아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사찰에서 녹화영상을 통해서만 보던 때에서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유튜브에는 다양한 큰 스님들의 생전 영상이 있다. BBS 유튜브 채널에서 올해 2월 26일 업로드한 '법정 스님 2006년 봄 법문' 중 '사람은 무엇에 쫓겨서 살아서는 안됩니다'는 22만 1422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5800여명이 좋아요를 남겼다.

법정 스님은 법문 전 '카메라, 뒤에 있는 분들이 나를 보고 싶어하거든?' 이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대중들은 함박웃음을 터트린다.

스님은 "사람은 무엇에 쫓겨서 살아서는 안된다"며 "사람은 특히 시간에 쫓긴다"고 지적한다. 스님은 "물리적인 시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심리적인 시간은 무한하다. 사람은 이런 심리적인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채널 댓글은 다른 영상들보다 많았다. "법정 스님 그립습니다. 스님 안계신 작금의 불교계에 밝은 빛줄기 내리길 발원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법정 스님 그립습니다." "법정 스님, 은근히 멋지시네요. 시작하자마자 빵터지는 멘트, 저도 기립박수 보내드렸습니다." 등등이 남겨졌다.

youtu.be/XkYH_aXWx9U

인 문

일당백 채널, '불교가 좋다'

유튜브 일당백 채널은 '일생동안 읽어야 할 백권의 책'이라는 지적인 삶을 위한 교양서적 혹은 시사내용 소개의 장이다. 팟캐스트와 병행되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불교가 좋다'라는 책에 근간하여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불교가 좋다'는 일본 인문학계의 중심인 나카자와 신이치와 가와이 하야오의 대담집으로 두 구루의 불교에 대한 대화를 기록하여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불교를 전한다. '불교가 좋다'에서는 종교, 철학, 심리학, 문학, 과학, 그리고 성담론 등에 유쾌하게 파고든다. 아시아인의 무의식에는 불교가 숨겨져 있음을 강조하면서, 21세기의 사상적 대안이 바로 불교임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수행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율 중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초현실적인 성관념도 드러낸다.

출연진 중 문학자인 정박 씨가 책을 보통 1부와 2부로 나누어 해설하는데 문학,역사,정치,철학,종교,미술 전반에 걸쳐서 해박한 지식을 곁들인 해설이 일품이다. 1부에선 책의 내용보다는 책을 쓴 작가의 내력, 책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2부에서는 책의 본문 중에서 1부의 배경과 연관지을 수 있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한다.

진행자인 정영진 씨나 패널인 정미녀 씨가 좀더 쉽게 풀어달라고 하며 일반인들이 갖기 쉬운 질문을 던지거나 시간을 채근 하는 모습 등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다.

2021년 12월 17일 업로드 된 1부 '왜 현대인들이 불교 사상을 필요로 하는가?'는 16만 7486회 조회수(2022년 3월 31일 현재)를 기록했으며, 2021년 12월 19일 업로드된 2부 '양자역학은 불교의 원리를 담고 있다?' 편은 15만 4413회의 조회수(2022년 3월 31일 현재)를 기록했다.

댓글로는 "크리스마스와 불교의 조합이 놀라웠다", "불교의 심묘함은 종교를 떠나 누구나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 "불교를 제대로 알면 논리적이며 과학적이란 걸 누구나 알수 있다" 등의 호평이 나왔다.

youtu.be/ua05SUU-J20

사 회

간다효 채널, 도대체 티베트불교는 무슨 종교일까?

역사 전문 유튜버인 간다효는 구독자 35만명을 자랑하는 크리에이터다. 간다효 채널은 '효기심'이라는 112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자랑하는 채널이 모태다. 간다효에서는 효기심과 달리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역사의 스토리를 과감없이 다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채널에서 3월 20일 업로드한 '도대체 티베트불교는 무슨 종교일까?'는 불과 10여일만에 18만 1555회 조회수(3월 31일 현재)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시청했다. 간다효는 기원 후 617년 토번제국부터 티베트 역사를 다룬다. 제33대 토번 군주인 송첸 캄포 시기의 치세부터 시작하여 당나라와의 관계를 고찰한다. 이 제국의 통치체제 일환으로 불교가 도입되고 티베트의 토속신앙 등과 습합되어 티베트 불교가 본격적으로 형성됨을 설명한다. 간다효는 1239년 몽골제국과의 관계에서 토번제국 내 티베트불교계의 영향력을 본 몽골 측의 정책으로 티베트불교계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티베트 불교계가 분화된다고 설명한다. 이후 현재 달라이라마가 있는 티베트 불교 종파인 겔룩파가 나오게 된 것 까지 영상을 마무리 한다. 이어 간다효는 3월 21일 '위태로운 티베트의 실제 상황'을 통해 현재 티베트와 티베트 불교계의 상황을 알린다.

불교계 밖의 유튜버 영상이기에 댓글들도 보다 활발하게 달렸다. "티벳과 몽골이 거리가 먼데도 똑같이 샤머니즘과 불교가 습합된 이유가 있었고 티베트 불교인 이유가 있었다" "호주에 살고 있는데 티벳출신 친구가 있다. 우리가 6.25로 힘들 때 모택동이 쳐들어와 나라가 없어진 상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youtu.be/2HygfBrw-Ug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월운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스님! 커피한잔 주시면
아주 작은 염불에도 엄청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소리로 화답하는 디지털 소리 체험을 드립니다.

주의 : 한국법당 시설들 거의 중국, 베트남 심지어 메이커를 지워버림
본품 : 100% MADE IN KOREA 특징 : 고가제품, 고장없음, 소리월등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특징 : 고장없음, 전제품 국산 확인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방문시 8천만원 하는 마이크 있음을 스마트폰 확인해 드림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6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여래만이 끊을 수 있는 '무명주지' 번뇌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⑬ 두 가지의 죽음

"죽음에 두 가지가 있사오니, 어떤 것이 그 두 가지인가 하면, 하나는 분단(分段)으로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사의 하게 변역(變易)하여 죽는 것입니다. 분단으로 죽는 것은 허망한 중생을 두고 한 말이요, 부사의 하게 변역하여 죽는 것은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대력(大力) 보살들의 태어나는 몸으로부터 위없는 보리에 이르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죽음 가운데 분단으로 죽는 것이 없어졌으므로 아라한 · 벽지불의 지혜를 일러서 나는 일이 다 하였다 하셨고, 더 해야 할 수행이 남아 있는 과(有餘果)를 증득하였으므로 범행(梵行)이 이미 섰다 하셨고, 범부인 인간세상 사람 · 천상의 사람으로는 이루지 못한 것이고, 일곱 단계를 거치는 학인(學人)들로는 앞서 끊지 못하였던 허망한 번뇌를 끊었으므로 할 것을 이미 이루었다 하고, 아라한 · 벽지불의 끊은 번뇌로도 다시 뒤의 몸(後有)을 받지는 아니하므로 뒤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였을망정 온갖 번뇌를 모두 끊고, 온갖 받을 몸을 모두 다 하였으므로 뒤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니, 왜냐하면 어떤 번뇌는 아라한 · 벽지불로는 끊지 못할 것이 있는 까닭입니다."

나고 죽는 생사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분단생사는 중생들이 육도를 윤회하면서 유루(有漏)의 선악업을 인(因)으로하고 번뇌의 장애(煩惱障)을 연(緣)으로 하여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삼계(三界) 안에서 거친 과보를 받는 것인데 그 과보가 수명의 장단이라든지 신체의 대소 등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단(分段)이라 한다. 이러한 분단을 받아 윤회하는 것을 분단생사라 하고, 변역생사(變易生死)는 삼계 안에서 윤회하는 몸을 여의고 성불할 때까지 자기의 수행 정도에 따라 삼계 밖에서 받는 생사를 말한다. 미계(迷界)를 벗으나 오계(悟界)에 이르기까지의 그 사이에 해당하는 생사를 말한다. 몸의 형태나 수명에 어떤 한계가 없는 생사이다. 번뇌가 없는 선정과 서원의 힘에 의해 미묘한 작용이 불가사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부사의 변역생사(不思議變易生死)라고도 한다. 성문이나 벽지불 대력보살 등은 변역신의 상태에서 생사를 받는다 한다. 이 변역생사는 의생신(意生身)으로써 생사를 받기 때문에 분단생사와 다르므로 실질적인 생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분단생사는 지은 업(業)에 대한 과보를 받아 태어나는 것이고 변역생사는 원력(願力)으로 태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변역이라 말하는 것은 분단생사의 분단을 바꾼다는 말이다. 이 변역생사의 변역신은 자신의 뜻대로 몸을 받기 때문에 형체가 아닌 심식(心識)으로 이루어지므로 의생신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또 번뇌가 거의 소진(消盡)되었기 때문에 무루신(無漏身)이라하며, 삼계를 벗어나 생을 받으므로 출과삼계신(出過三界身)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위의 본문에서 밝힌 대로 〈승만경〉에서는 아라한과 벽지불, 그리고 대력보살은 번뇌혹장(煩惱惑障)을 끊어 삼계 내의 분단신을 받지 않고 생을 받되 삼계 밖의 변역신을 받는다는 것이다. 대력보살이란 무명을 벗어나 생사에 자유자재한 보살을 두고 한 말이다.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은 생사를 벗어나는 힘을 말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은 비록 변역생사라 하더라도 생사를 받는 것은 비록 미세하긴 하지만 번뇌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이다. 모든 번뇌의 근본 의지처가 무명주지(無明住地)인데, 〈승만경〉에서는 이 무명주지의 번뇌는 아라한이나 벽지불 등은 끊을 수가 없고, 오직 부처님이라야 끊을 수 있다고 했다. 길장(吉藏)의 〈승만보굴〉에는 무명주지를 설명하기를 어두운 번뇌의 마음에는 지혜의 빛이 없기 때문에 무명주지라 한다 했으며, 지혜의 역할이 번뇌를 끊는 것이라 했다. 다시 말하면 번뇌를 끊는 것이 지혜라는 말이다. 무명주지에는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의 번뇌가 있다 하였다. 생사를 완전히 벗어나려면 무명주지가 없어져야 하며 이승(二乘)들이 생사를 벗어났다는 것은 삼계 내의 윤회를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며, 삼계 밖의 몸 곧 변역신을 받는 것까지 벗어났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후유(後有)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삼계 윤회를 벗어났다는 뜻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범부 8식을 부처님 지혜로…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㊱ 관음신앙의 올바른 견해

전식득지(轉識得智)

불자 여러분! 〈유가사지론〉에서는 보살이 원생하는 원인과 함께 원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악취에서 고통 받는 중생구제를 위하여 악취에 태어나고, 또한 그들을 대신하여 괴로움을 받으며, 오직 비원력(悲願力)에 의해서 악취에 몸을 나투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야기하는 거칠고 무거운 업을 모두 끊어 머지않아 전의(轉依)를 획득하게 된다"고 원생하는 원인과 원생의 이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전의(轉依)'란 말은 유식학(唯識學)에서는 '전식득지(轉識得智)'라고 표현합니다. 전식득지는 아뢰야식 속의 번뇌를 일으키는 유루(有漏)의 종자들을 모두 소멸시켜서 식(識)을 지혜(智慧)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유식사상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실천 위주의 수행을 하는 유가행파에서는 8식의 마음을 부처님의 지혜로 전환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범부의식인 전5식을 성소작지(成所作智)로 전환하고, 제6식인 의식을 묘관찰지(妙觀察智)로 전환하고, 제7식인 말나식을 평등성지(平等性智)로 전환하고, 제8식인 아뢰야식을 대원경지(大圓鏡智)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수행을 실천합니다. 이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등의 사지(四智) 가운데 특히 '대원경지'는 일체종지(一切種智)라고 해서 제법의 실상을 꿰뚫어 아는 부처님의 지혜[佛智] 즉 불지견(佛知見)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대해서는 〈대승장엄경론〉권3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8식을 전(轉)하여 대원경지(大圓鏡智)를 얻고, 제7식을 전(轉)하여 평등성지(平等性智)를 얻고, 제6식을 전(轉)하여 묘관찰지(妙觀察智)를 얻고, 전오식을 전(轉) 성소작지(成所作智)[作事智]를 얻는다"고 분명히 범부의 8식을 부처님의 지혜로 변혁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생(願生)의 이익(利益)

불자 여러분! 원생의 원인은 중생구제를 위한 대비심의 서원이라고 〈유가사지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원생을 통한 이익은, 자신이 지난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이 소멸되고 번뇌가 소멸되는 증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원생의 증과 내용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생의 모든 괴로움은 모두가 무명(無明)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윤회 고통의 원인인 무명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불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는 이유 역시도 무명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무명을 제거하여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불교를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신앙하면서 염불 · 주력 · 독경 · 참선 등의 다양한 불교 수행법을 실천해 보았지만 막상 업력 때문에 무명을 제거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황하며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 이런저런 실천방법을 찾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불자 여러분! 〈유가사지론〉에서는 서원과 원생을 통한 증과로 무명을 지혜로 전환시켜 정각을 얻어 성불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명이 지혜로 변환되는 원인은 다름 아닌 중생구제를 위한 서원과 원생을 통해 중생을 고통 속에서 구제하는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심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들이 과거에 스스로 지은 악업과 번뇌를 모두 소멸시키고, 궁극에는 무명을 지혜로 전환시켜 무상정등각을 얻어 성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⑫ 올바른 견해의 경 ③

환영은 있지도 없지도 않다

〈幻影〉

"벗들이여, 어떠한 것이 존재이고, 어떠한 것이 존재의 발생이고, 어떠한 것이 존재의 소멸이고, 어떠한 것이 존재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까? 그것들 가운데는 세 가지 존재, 즉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존재, 미세한 물질계의 존재, 비물질계의 존재가 있습니다. 벗들이여, 이것을 존재라고 부릅니다. 집착이 생겨나므로 존재가 생겨나고 집착이 소멸하므로 존재가 소멸합니다. 존재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야말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니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입니다."

뭇 삶이 누군가의 삶이 아니듯, 태어남 또한 누군가의 태어남이 아니다. 태어남을 거칠게 설명하자면 존재의 다발들이 나타나 감관을 얻는 것이다. 이름 붙은 누군가의 탄생이 태어남이 아니라 감각기관의 작용이 태어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존재란 자아의식으로, 존재가 생겨나므로 태어남이 생겨난다. 어떠한 형상을 가지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한 태어남을 면할 수 없다. 반대로 어떤 물질을 나라고 인지하지 못한다면 태어날 수 없다. 존재가 소멸함으로 태어남이 소멸한다.

갈애가 집착을 낳고 집착이 존재를 낳는다. 집착이 없다는 것은 태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어남은 집착이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규범과 금계에 대한 집착, 자아이론에 대한 집착 존재를 가진 이상 이 네 가지 집착을 벗어나기란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는 바른 견해는 연기(緣起)를 볼 수 있게 한다. 연기하면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 그 안에 나의 갈애, 나의 집착, 나의 존재가 없음을 정확히 견지(見地)하고 있는 것이다. 견지할 뿐 개입하지 않는 이 바른 앎의 새김 속에서 연기라는 환(幻)이 어떻게 형성되어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 할 수 있다.

200년 전의 사람들에게 미국에 있는 사람과 한국에 있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목소리를 주고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지금 당장 내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들리고 보이는 생생함 때문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실체하지 않는 의식이 만들어낸 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모든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인 하나의 실재는 보이지 않고, 실재가 아닌 환이 실체처럼 느껴지는 아이러니가 환영(幻影)을 지속시킨다.

환영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정신 혹은 감각에 왜곡이 생기면 보이는 것이다. 만약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환영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환영이 있다' 고도 하지 않고 '환영이 없다' 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환영이 있다', '환영이 없다' 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게 하는 것이지, 환영을 잡고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과 다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어리석은 일인 것이다.

이처럼 욕망에 대한 존재, 미세한 물질계의 존재, 비물질계의 존재 즉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 혹은 없다' 에 힘을 쏟지 않아도 된다. 위에서 태어남을 설명했지만, 우리는 태어남을 모른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태어남을 태어남으로 알고,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며 자라나고 먹고, 자고, 늙어가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나의 기억, 온갖 지식과 경험으로는 바른 사유를 할 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워야 한다. 변하는 것과 허물어지는 것과 사라지는 것으로써 올바른 견해를 알기 위해 더는 힘쓰지 않는 것이다. 오온이 신기루를 아 구하려고 할 때,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버리기만 한다면 그는 올바른 사유를 성취하게 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엄마, 소리 한 번이라도"…
심장 혈관 막혀 생사 갈림길 선 아기

희망 찾아 베트남에서 온 후이티공씨 부부…4년 만에 후이뚜언 출산
심부전 등 진단 산소호흡기 없이는 호흡불가…병원비만 수천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82호 | 17 | 전면광고

바른 도를 잘 닦아 익히어 진실한 법의 그 모양 알고 그 도량에 굳건히 머무르면 부처님의 보리를 성취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 합장 010-3586-6091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양도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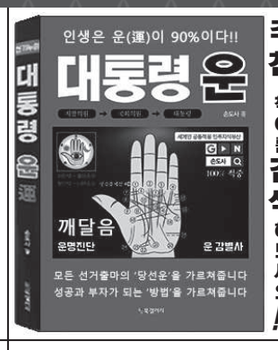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합

010-5412-8040 법광

불 교 용 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자비행법 전수인 모집

지장보살님의 점찰행법
아미타불님의 현행참법

❊ 사부대중의 전수인을 00명 모집합니다 ❊

유튜브. 법장TV를 참고하세요
지리산향기암 법장행자
010-2367-0086

작법무 연수원

천수바라부터 작법 및 염불, 사물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밀히 지도합니다.

010-2635-9386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종 각
일주문 삼성각

원명 010-4300-9104

비구니 기도스님, 보살 모십니다.
지리산 작은암자

010-4569-3722

청주 봉은사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010-5883-2255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특수불 각 한분씩
(높이105cm, 좌대30cm)
모셔갈분 찾습니다.

010-5353-3936

특수기도법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사찰(포교원)안내
공양주, 부전으로
일할분, 쓸 분, 포교원 할 분
(서울에 적소 명당)
남 · 여 결혼할 분 모심
서울 명동 결혼상담

010-5381-1419

부전(기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0-8620-4303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음향기기 최저가 설치

음향업자가 아닙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사찰에서 사무장을 맡았을 때 주지스님 부탁으로 음향장비 설치를 시작했고, 주변 스님들께서 일부 업자들의 **견적 부풀리기**, **불필요 장비설치**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으시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찰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사찰에서 원하시는 장비로만 구성하며,
- 모든 장비는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
- 별도의 설치비는 없고, 거리에 따른 출장비만 발생
- 사정이 어려우신 사찰은 중고장비라도 구해서 설치

문의 : 010-2068-7030

❊❊❊
단청,탱화,개금
사찰신축, 보수, 기와
❊❊❊

화공기능보유자
010-9387-1518

경상도 고향인 30대 후반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주소 : 함안군 군북면 밀림사
주지 : 지웅 합장(76세)

010-6893-5040

불자가 운영하는 '아라리냠냠'

강원도 정선에서 생산한 곤드레부각, 곰취부각, 깨잎부각, 고추부각과 도라지, 곰취, 현미, 17곡, 강황누룽지칩 오란다등 다양하게 수제로 만듭니다.

코로나로 많이어렵습니다.
큰스님, 불자님 꼭 한번주문해주세요(1봉지5천원)
문의전화 : 010-8844-8245 청정행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자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82호 | 18 | 전면광고

의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구하고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수도권
◎ 경내부지 : 250평
◎ 건평 : 50평
◎ 수도권, 산, 주차가
◎ 매가 : 3억3천
◎ 위치 : 전국
◎ 부지 : 1000평-10만평
◎ 건평 : 120평외전각
◎ 천년사지, 외
◎ 매가 가격다양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남 양산 위치 사찰
- 부지 총면적 : 718㎡(217평)
- 건물 총면적 : 224.82㎡(68평)
- 가액 : 7억8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독채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45만원
- 시설금 1천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찰부지 및 토굴터

- 위치 : 경남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924번지, 925번지)
- 면적 : 800평(국유림內 소재), 생산관리 지역
- 특징 : 정남향, 주변 소나무 및 암반, 포장 완료, 버스 진입가능, 물1급수, 주변 민가없음,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3억

010-8516-332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 / 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 / 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사 찰 (급) 안 내

- 종교부지 760평 계획관리. 대재 240평
- 감곡 장호원 KT역에서 10분거리
- 대웅전, 종각, 요사채, 휴게실, 찜질방2, 연못, 잔디정원, 요사3동, 산신각, 차고40대, 대형해수관세음보살, 5층석탑, 진사리탑
- 친견하시고 상담하세요
- 매매상담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5883-2255
010-5223-370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5천(조정 조금 가능)
- 가전제품 보시합니다.
- 당일법회 가능합니다.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평사리길
- 비어있는 토굴에 비구니스님, 보살님 사실분 아미타불님의 현행참법 지장보살님의 점찰행법 유튜브, 법장TV를 참고하세요

010-2367-00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171)대웅사
- 토지 : 5,824평(종교용지 : 1,690평, 산168-2 : 4,134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체(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할상환 가능)
-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 절충가)

010-4225-0012

절터 최적지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로
- 면적 : 총680평
- 건평 : 50평
- 가액 : 6억8천만원

010-2315-724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 부지 : 대지,전,답 1,800여평
- 바닷가 부근
- 대웅전, 주지실, 큰방
- 가액 : 13억

010-9178-6397

3층 상가주택 안내

- 위치 : 김천시 부곡동
- 대지 약 98평
- 1층 : 상가3칸 세나옴
- 2층 : 주택 전세3천
- 3층 : 학원하던곳, 포교당자리
- 가액3억에서 3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 통도사에서 15분, 양산IC에서 15분
- 총평수 : 588평, 법당 단독 기와집 주방 방3개 46평, 양지, 영축산을 등지고 천성산을 바라봄, 산신각 전통목조 6평, 콘크리트조 9평, 지하수(청옥 암반수), 시수도 연결되었음, 농사용 전기, 저온창고
- 융자 3억, 평당 2백30만

010-5309-911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산 입구
- 2층 43평, 시설금 7백만, 보증금 3백 합 1천만, 월세 30만
- 법당, 요사채(2), 공양간
- 시설완비(에어컨2,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증설, 판넬, 도배, 장판, 음향)
- 5년전 인수금액보다 5백만 절상

보문산 지장사 무진
010-3049-581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대문구 왕산로
- 건평 :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 건강문제로 인해 양도함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 임대료 월 8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010-3714-101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344~43번지
- 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 6억

010-3640-312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4억 8천만원

010-7710-8334

토굴·농막(터)안내

- 위치 : 충북 영동군
- 평수 : 대지 298(90)평, 남향
- 용도 : 토굴, 주말쉼터
- 조용하고 한적한 산골, 계곡접, 전기, 지하수, 오폐수시설, 측량되어있음, 콘테이너, 농막용 설치만 하시면 됩니다.
- 가액 : 2천 300만원

010-5454-0282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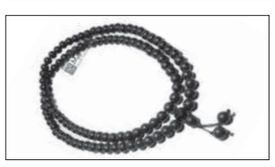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⑦ 인천 서구 법명사 참나무

무정설법이 가득한 도심 속 도량

인천 서구 원적산을 병풍으로 두르고 있는 법명사는 1989년 부루나포교원이란 이름으로 시작된다. 선일 스님이 미국행에 앞서 후원 사찰의 의미로 작은 상가에 둥지를 틀었는데, 바람과 달리 신도들이 모이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다. 목탁 세 개가 부수어질 정도로 정진, 또 정진하니 어느 순간 신도 가득한 지금의 법명사로 거듭났다.

"〈법화경〉 '오백제자수기품'에 보면 부처님께서 부루나존자에게 '너는 전법제일존자면서 앞으로 법명여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명사 회주 선일 스님의 이 말에서 부루나포교원이 법명사로 이름을 바꾼 이유를 알 수가 있다. 불교 불모지에 가깝다는 인천에서, 포교 원력 초기 절 하나 없었다던 서구에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오늘의 법명사를 일구어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자비와 인욕으로 불교의 불모지였던 수로나 지방에서 전법을 실행한 부루나존자를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평구와 서구를 오가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옆 은행나무 가로수 사이에 법명사로 들어가라는 안내판이 보이고, 바람막이인 듯 소음막이인 듯 길게 늘어선 향나무 앞 십이지신상을 지나니 명상박물관이 나온다.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는 명상박물관은 선일 스님이 신도들과 명상을 하면서, 명상의 모든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 나누면서, 모든 명상을 한눈에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설립된 건축물로 2층 나한전에서는 명상 등 여러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제 인터넷에서 특이하게 다가왔던, 이곳을 찾은 동기이기도 한, 큰법당 주위에 있는 꽃밭 속 주인공들을 만나려고 기웃거리는데, 조화를 빼고는 모든 꽃들이 죽은 듯 겨울을 끝내지 않고 있다. 시들다 못해 곧 부서질 것 같은 줄기들이 안쓰러운 듯 툭툭 불거진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어르신의 굽은 등에 오래 눈길을 줄 수 없어 산과 평지의 경계에 선다. 딱 거기가 큰법당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산비탈에 서 있는 나무들을 관찰하고, 아래에 수북하게 더미진 잎들을 주워보고, 군데군데 겨울을 통과한 도토리들을



나무 중의 나무 참나무가 함께하는 법명사.

보면서 내린 결론은 참나무 6형제 가운데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가 주로 있다는 것이다. 눈에 띄지 않은 나머지 3형제는 떡갈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이다.

참나무는 한 종(種)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참나무과에 속하는 전 세계 600여 종의 나무를 통칭하는 단어다. 우리나라에는 남부 지방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가시나무류를 포함해 15종이 있는데, 이들 나무들이 도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어 도토리나무라는 이름이 친숙하다.

참나무 한자는 진목(眞木)이다. 참 진(眞)을 쓰고 있으니 참나무가 된다. 참나무영어는 Oak다. 나무 영어는 tree다. 그런데 tree는 고대인도 유럽어의 'deru, daru'에서 변화된 것으로, 이 단어는 firm(단단한), solid(견고한), steadfast(변함없는)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tree와 'deru, daru' 사이에 Oak라는 중간 과정이 있단다. tree에서 나아가 만들어지는 단어가 true(진실)인데, 산짐승 위험에 늘 놓여 있던 시절 안전하게 도망갈 곳은 나무밖에 없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서양의 Oak도 참 혹은 진실이라는 뜻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동서양이 공통으로 '참'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참나무 학명에서 속명은 Quercus이다. 이 단어는 켈트어로 quer(질 좋은)와 cuez(목재)의 합성어란다. 말 그대로 목재로서의 가치가 아주 좋아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주요 건축부재로 쓰였는데, 벌채가 너무 심해 고려에서는 느티나무로, 조선에서는 소나무로 대체되면서 참나무가 많이 잊혀져 갔다.

식물 학명은 라틴어가 대부분이지만 켈트어 비중도 상당한데, 켈트족은 최초의 인간이 나무였다고 믿는 종족이었다고 한다. 이 켈트족에는 드루이드라는 사제계급이 있는데, 그 뜻은 '참나무에 대해서 깊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아가 참나무에 달린 겨우살이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 당시 겨우살이가 약으로 중요하게 쓰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숲은 참나무류가 소나무류보다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도 소나무가 늘 최고의 나무로 인식되는 건 최근 역사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나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슬러 가면 우리 조상은 켈트족과 마찬가지로 참나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것은 큰법당 옆에 자그맣게 자리잡고 있는 산신각 안 단군 초상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군 허리를 감싸고 있는 잎들이 상수리나무 잎이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참나무에서 곧 새순이 돋으면서 수꽃과 암꽃이 보일 듯 말 듯 피어난다. 선일 스님은 무정설법(無情說法)이라면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한다. 나무 중의 진짜 나무, 참나무가 함께하는 사찰에 늘 참뜻이 가득하리라.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⑦ 최영미의 '선운사에서'

깨달음의 정처, 선운사

선운사에서 / 최영미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쳐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잊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 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어도
잊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최영미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 창작과비평사, 1994)

왜 그럴까. 전국의 산사(山寺) 가운데 시인묵객들이 소재로 가장 많이 끌어다 쓴 절이 전북 고창 도솔산에 있는 '선운사(禪雲寺)'다. 까닭이 뭘까, 곰곰 생각해본다. 대번에 떠오르는 시 한 편. 미당 서정주의 '선운사 동구(禪雲寺 洞口)'다.

"선운사 골째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안했고/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었읍디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었읍디다."

-서정주의「선운사 동구(禪雲寺 洞口)」

으으-, 아아-, 으아아-, 이 맛을 감히 어떻게 표현할까. 이 육질(肉質)을, 이 애절(哀絶)을, 이 육자배기와 향토와 가락과 연애를 어떻게 감히 말로 형용할 수 있을까. 이 절묘한 장인(匠人)의 솜씨 앞에 필자는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미당의 이 시로 인해 선운사는 문학의 천국이 되고 창작의 샘물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천국의 샘물은 아직도 수많은 시인묵객들의 영감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아리고 쓺고 애달프고 질퍽하게, 때로는 핏빛 사랑으로, 때로는 붉은 연애로, 때로는 구수한 막걸리로, 목이 쉬게 시인묵객들의 마음을 육자배기로 흔들고 있는 것이다. 김용택 시인은 그 샘물 앞에서 끝내 이렇게 울었다.

"여자에게 버림받고/ 살얼음 낀 선운사 도랑물을 맨발로 건너며/ 발이 아리는 시린 물에 이 악물고/ 그까짓 사랑 때문에/ 그까짓 여자 때문에/ 다시는 울지 말자/ 다시는 울지 말자/ 눈물을 감추다가/ 동백꽃 붉게 터지는/ 선운사 뒤안에 가서 엉엉 울었다" - 김용택의 '선운사 동백꽃'

희한하다. 김용택 시인은 어째서 선운사를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로 끌고 와 엉엉 울었을까. 안도현 시인도 기막히게 선운사를 끌어 들였다.

"나 오래 참았다/ 저리 비켜라/ 말 시키지 마라// 선운사 뒷간에/ 똥 떨어지는 소리"

-안도현의 '동백꽃 지는 날'

서정춘 시인과 박남준 시인은 한 술 더 떴다.

"동백숲이 정처(定處)다// 아껴서 듣고 싶은 철새가 운다// 울다가 그만 둔다// 귓속이 환해진다// 동백숲 그늘을 치고 동백이 진다// 할! 맞아 떨어진 점화(點火)를 본다"

-서정춘의 '선운사 점묘'

"선운사 동백꽃 보러 갔습니다/ 대웅전 뒷산 동백꽃 당당 멀었다 여겼는데요/ 도솔암 너머 마애불 앞 남으로 내린 한 동백 가지/ 선홍빛 수줍은 연지곤지 새색시로 피었습니다/ 흰 눈밭에 울컥 각혈을 하듯 가슴도 철렁 떨어졌습니다 그려"

- 박남준의 '선운사 동백꽃'

김영남 시인은 아예 내놓고 들이댔다.

"만약 어느 여자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숲속 길이 있다면/ 난 그녀와 살림을, 다시 차리겠네// 개울이 오묘한 그녀에게/ 소리가 나는 자갈길을 깔아주고/ 군데군데 돌무덤을 예쁘게 쌓겠네./ 아침이면 노란 새소리로 풀꽃을 깨우고/ (중략)/ 모두 떠나버린 겨울에는 그녀를 더 쓸쓸하게 하겠지?/ 그러나 난 그녀를 끝까지 지키는 장사송(長沙松)으로 눈을 얹고/ 진흥굴 앞에서 한겨울을 품위 있게 나겠네.// 설혹 그녀에게 가파른 절벽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위에 저렇게 귀여운 암자를/ 옥동자처럼 낳고 살 것이네."

- 김영남의 '선운사 도솔암 가는 길'

가수 송창식의 노래도 '선운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다.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설운 날에 말이에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나를 두고 가시려는 님아 선운사 동백꽃 숲으로 와요/ 떨어지는 꽃송이가 내 마음처럼 하도 슬퍼서/ 당신은 그만 당신은 그만 못 떠나실 거예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말이에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 송창식의 노래 '선운사' 가사

이만하면 선운사가 왜, 시인묵객들의 문학적 소재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는지 알 듯도 하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필자는, 아직도, 그 연유를, '선암사 동구'에서 찾고 있다. 아무리 노래를 잘 해도 미당이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최영미 시인의 '선운사에서'는 매우 도발적이면서도 뜨겁고, 매우 관능적이면서도 그 속에 불교의 자비희사(慈悲喜捨)와 도솔(兜率)·관음(觀音)사상을 담고 있다. 선운사를 소재로 한 많은 시편 속에 '여자'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그 '여자'들은 끝내 깨달음으로 회귀하고 있는 '여자(중생)'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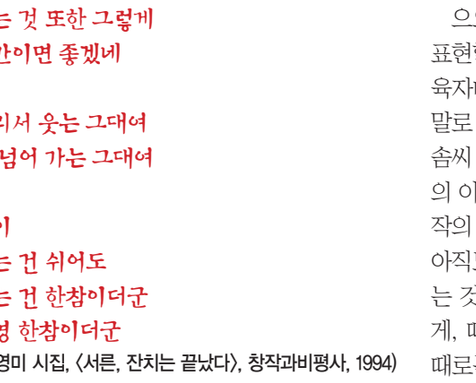
〈불교문학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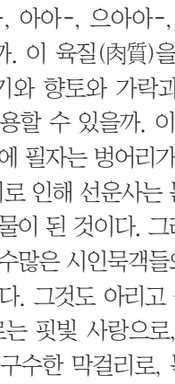
또 다시 닥친 코로나의 위기와 공포!!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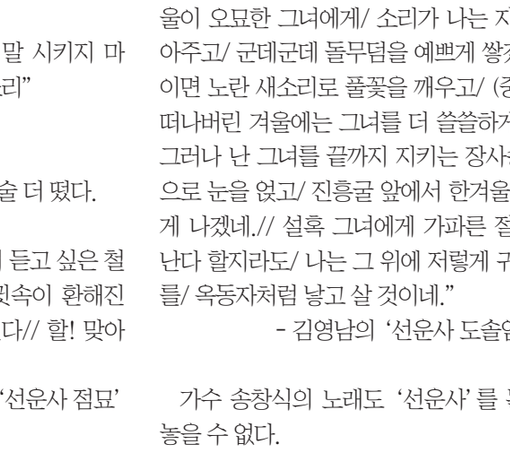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마음책 다시 읽기 ‘그대는 꽃입니다’ ❺ 당신이 많이 아팠군요

▶ 한줄 요약
거론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항상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해 위한 작은 출발점 ‘솔직해지기’



상대방 마음의 상처 치유
대화 속에서 싹트기 시작
솔직함 기반 터놓기 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물어보기

마음에 꽃피우기 위한 따뜻한 대화의 기술 세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심정이 어땠는지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정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숙함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나요? 제가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나요? 당신의 속마음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당신이 누군가를 심하게 마음 상하게 했을 때는 바로 알아차리고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상처일 경우 특히 당신이 상대방보다 선배이거나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조카에게 장난을 칩니다.

하지만 조카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은 가끔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고는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린 아이들과 십대의 조카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을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작은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상처인 경우에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니?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런데 아빠가 미숙해서 너에게 상처를 준 일이 많았을 거야.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실을 말해 주겠니?”

엄마가 묻습니다.

“엄마가 너를 잘 이해하고 있니? 엄마가 혹시 너에게 상처 준 일은 없었는지 말해 주길 바란다. 네가 사랑받길 원하는 방식으로 엄마도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의 말을 듣고 싶구나.”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

플럼빌리지의 재가 수행자들 중에 십대 커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젊은 불자들이 매우 대견스러웠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의 좋은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들에게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을 하도록 권했고 실제 그들은 수행을 참 잘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을 잘하고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준비를 하기 전까지 항상 내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날 나는 다시 한 번 물어 보았어요.

“마음에 꽃피우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 아니요,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 할일이 너무 많아서 못했어요.”

이후 그들은 결혼 후 미국에 정착했어요. 내가 가끔씩 그들을 만날 때면 “마음에 꽃피우기를 계속하고 있나요?”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 네! 저희는 이제 서로에게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만 마음에 꽃피우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상처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그것은 아이들을 위해 옷을 사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돈을 많이 써도 걱정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내의 가정은 가난하진 않았지만 돈을 무엇에 어떻게 썼는지 꼼꼼히 기록해야 했죠.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돈에 대해 각자의 가정에서 익힌 습관대로 했습니다.

결혼 후에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정해진 선에서 돈을 썼습니다. 매년 아이들의 옷과 신발이 필요할 때는 새 것을 사기보다는 언니의 아들에게 물려받은 것을 입혔고, 그렇게 해서 저축한 돈은 베트남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보냈어요. 미국에서 한 아이를 입히는데 드는 비용으로 베트남에서는 스물다섯 명의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점심을 먹을 수 있고, 선생님과 봉사자들에게 월급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되었거든요.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기부금을 내는 것을 그녀는 아주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과 아이들에게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던 거죠.

오랫동안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에게 짜증과 화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14년의 결혼생활은 이혼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들은 세 명의 자녀가 있었고 막내는 태어난 지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플럼빌리지에 머물면서 불교 수행을 하던 남편이 겨우 3개월밖에 안 된 딸을 두고 어떻게 14년의 결혼생활을 끝낼 수 있죠?”라며 의아해 했습니다.

그가 플럼빌리지로 나를 만나러 와 수행 점검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에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14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 신발이나 옷을 한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아빠인 제가 사줘야 했죠. 제가 딸 아이의 기저귀를 갈려고 할 때도 아내는 기저귀 하나 갈 줄 모른다고 투덜대면서 저를 쫓아냈어요. 저는 할 만큼 충분히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돕고 있는 베트남 아이들의 사진도 보여주지 않았죠. 맨 처음에 그녀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새 구두를 신는 대신 그 돈을 가난한 아이들에게 주면 어떨까?”라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아내가 아이들에게 신발을 사주지 않아서 불만스러웠을 때 남편은 부드럽고 상냥하게 물어 볼 수 있었어요.

“여보, 우리는 아이들이 세 명이나 되는데 당신이 옷과 신발을 사주지 않아 항상 내가 사줬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은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엄마고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물어봤다면 그녀는 설명해 줄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녀의 행동에 조금 충격을 받긴 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여겼던 거죠.

‘마음에 꽃피우기’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혔거나 당신을 당황하게 했거나 또는 불행하게 만든 적이 있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 상관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내가 왜 아이들을 위해 구두를 사지 않았는지를 남편이 상냥하게 물어봤다면 그녀는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는 베트남 출신이라서 배가 고프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옷과 신발을 사기보다는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돈을 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제가 당신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미안해요.”

그녀가 남편과 이혼한 후 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매주 아이들과 ‘마음에 꽃피우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아이들과의 관계를 돌보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남편과 헤어진 것처럼 자녀들과도 한 명씩 헤어지게 될 거예요. 당신이 매일 조금씩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준 것으로 인해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그녀는 요즘 매일 밤 ‘마음에 꽃피우기’를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취침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야기책을 읽어 줍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아이들은 모두 그녀에게 감사를 표현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오늘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니?”

처음에 이런 질문을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너무 좋아요.”라고 말할 걸로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잘 하는 큰 아이 두 명이 “네”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녀는 좀 놀랐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을 상처 줬어? 어떻게?”라고 물었죠.

네 살짜리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멋진 그림을 그려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전화기를 들고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계속 엄마한테 그림을 보여 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여기 좀 봐요, 여기 좀 봐요!’ 그런데도 엄마는 전화 통화를 계속했고 그림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학교로 갔어요.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어른한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상처가 어린이에게는 아주 큰 상처로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미안하구나, 아들아, 할머니께서 먼 베트남에서 전화를 하셔서 그때 할머니와 전화통화를 계속해야 했단다. 엄마가 너의 그림을 지금 볼 수 있을까? 와, 너무 아름답구나. 그림이 아주 멋지구나.”

어머니가 아들에게 사과하고 그의 그림을 높이 평가했을 때아들의 상처는 비로소 치유된 것입니다.

그녀의 다른 아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장난감이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돈이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은 아빠한테 사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엄마가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장난감을 사줄 수 없다고 하셔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들아. 아빠는 엄마랑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월급에서 많은 돈을 엄마에게 주지는 않는단다. 아빠는 집세와 우리가 사용할 식비만 주고 있어. 아빠는 너희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무술 수업료를 내주고 네 형의 음악 수업료를 내주고 있어. 아빠는 엄마한테 몇 백 달러 정도는 주고 있지만 그 돈으로는 엄마가 지불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단다. 그래서 그 장난감이 비싸진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돈을 다 써버리면 다른 생활비가 부족할 거야.”

그녀가 설명하자 아들은 비로소 이해했고 그녀에게 다시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그 후 자녀들은 매일 밤 엄마와 함께 ‘마음에 꽃피우기’를 했고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이혼하기 전에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법을 활용했더라면 쉽게 피해 갈 수 있었을 일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헤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을 해야 합니다.

거론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결코 낭비해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자 : 찬콩 스님 〈사유수 펴냄〉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82 호 현대불교
2022년 4월 6일(음 3월 6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공법의 문 없는 문을 발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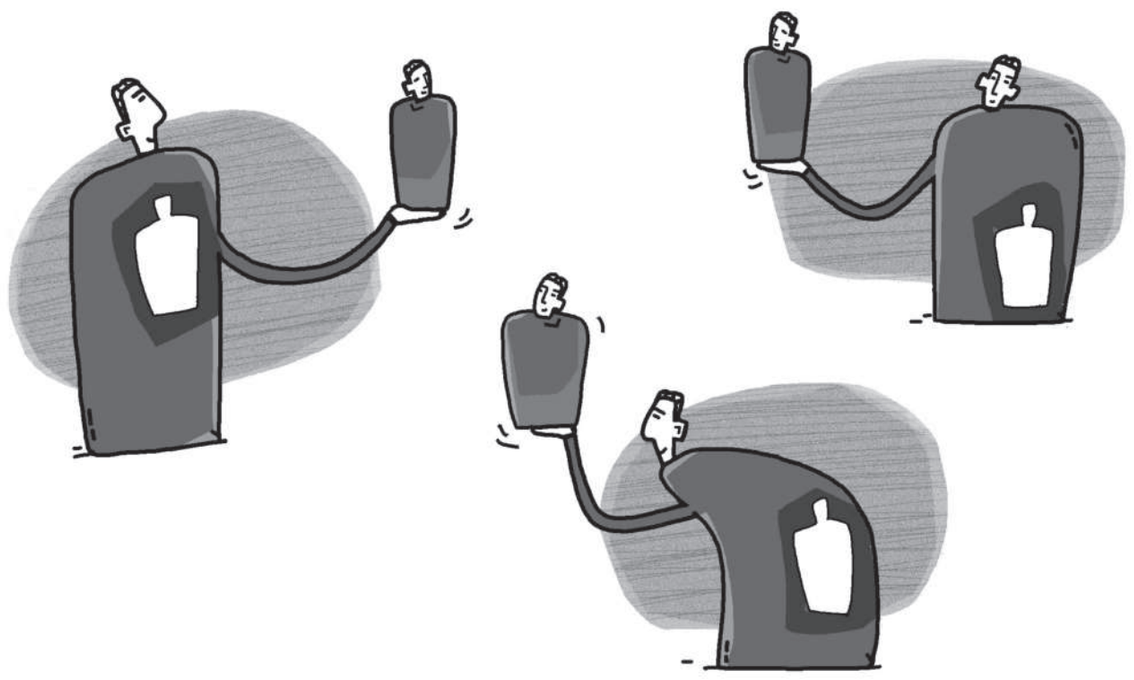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는 머리 깎은 스님네들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우리가 머리를 깎는 거는 방편으로 깎지만 공부하는 거는 머리 깎고 안 깎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몸뚱이가 자긴 줄 알거든요, 모두가. 몸뚱이를 이끌어 가는 자기 주처를 주장자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종자의 뿌리인데, 즉 근본, 생명의 근본 뿌리예요. 그래서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자기를 수없이 진화시켜서 생성시킨 장본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거죠. 못 믿고 자기가 물질세계에서만 반복해서 보던 거, 듣던 거 여기에 감지돼 가지고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이 물질세계 50%에서 정신세계 50%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알아서 굴려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50%는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자기를 미생물에서부터 진화시켜서 형성시켜 왔다는 거를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형성시키려면 가공이 돼야 되듯이, 정자 난자를 빌려서 삼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형성시켜서 지금도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끌려다니는 차가 자기래요. 끌려다니는 자동차와 같거든요, 이 몸이. 이건 생명의 근본이 빠지면 송장이 되는 거거든요. 한계가 있고. 그러나 자기 영혼의 근본은 한계가 없거든요. 그 때문에 아주 그, 보물이라고 할 수밖엔 없죠. 보배 중의 보배죠, 아주.

그런데 거길 못 믿어요. 아니, 형상과 이름 이런 거는 믿어도 자기를 리드해 가는 자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리석게 딴 사람더러, 딴 그림자를 보고 기도를 하면서 해 달라고 그러니, 그게 돼요?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지금 병이 나도 여기다가 진짜로 믿고 관해야, 이 의식들이 모두 그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야 통신이 돼요. 통신이 돼야 대뇌로 해서 사대로 통신이 돼서 그냥 공장장한테로 다 통신이 되거든요. 이것도 한 개체의 세계와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통신이 되면 '어느 부분, 어디가 왜 이렇게 됐느냐. 수문장이 잘못한 거냐, 안에서 일어난 거냐, 바깥에서 들어온 거냐.' 자동적인 컴퓨터에서 증명서가 나오듯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와서 부서에서 저거 하면 그냥 모두 서로서로 통신을 하면서 작용을 해 주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도 전부 자동적인 정수의 컴퓨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이 항상 되는 겁니다, 항상. 그대로 우리가 마음먹는 대로, 이 속의 생명들은 다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따라 주거든요. '내가 저 집 가서 도둑질하겠다.' 그러면 도둑질하게끔 따라 줘요. 그리고 또 '아, 이건 뭐, 시간이 돼야만 될 텐데 시간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러기 이전에 '이 도리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없다.' 이러곤 그냥 밀고 나가면 그대로 따라 주죠. 즉 얼른 쉽게 말해서 내 이 자부처의 마음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통신이 돼서 작용을 함으로써, 지금 시쳇말로 한다면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서 조절을 한다. 즉 말하자면 헤아릴 수 없단 얘기죠.

지금 그 입자를 뭐라고 이름을 부를까. 비천상이라고도 보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보살들을 입자라고 해도 방편이 됩니다. 입자가 다시 원자도 될 수 있고 또 원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깊은 공부입니다. 자기를 리드하고 자기 보디가드가 돼 주고 자기 해결사가 돼 주고 자기 의사가 돼 주고, 때로는 관세음이 돼 주고 때로는 해신이 돼 주고 산신이 돼 주고, 그냥 그 용도에 따라서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한테 닥친 것대로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작용을 작용이라고 하질 않고 공법이라고 그러죠. 용무의 공법. 그런데 모두 주인공은 진짜로 찾으면서, 믿고 찾으면서도 아주 가긍하질 못해요, 진짜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병원에 갈 돈도 없고 그래서 죽게 되니까 '죽이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다.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없게 한 것도 너고 있어서 살게 하는 것도 너니까 죽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그러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맘대로 해.' 하고 너무 지치니까 그냥 팽개쳤더래요. 그래선 툭툭 털고 일어났더래요. 그 모든 게 그렇게….

그래서 이게 '교화를 한다, 선과 교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문 없는 문, 법문이라고 그러죠, 왜. 그럴 때 공법의 문 없는 문을 발견하라. 문이 있는 데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선 공부에선 그냥 아주 망친 거죠. 문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은 지금 현실 세계밖에 더 있습니까? 이 공용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공심이 문을 찾아서 다닙니까? 문도 없고 봇장도 없고 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아무리 은산철벽으로 막혔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죠, 체가 없으니까. 물 깊이가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법을 배우려면 이것부터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의사들 또 과학자들, 이러한 분들이 더 알아야 되는 문제죠, 이거는. 우리가 마음의 차원이 높지 않다면 앞으로는 높은 데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 쓸 수도 없고, 높은 데 있는 그 에너지의 질량을 어떻게 방침을 세워서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얼른 쉽게 말해서 죽게 되면 죽는 거죠. 이북에 지금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디다. 그거와 같거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가 훌랑 그냥 한 주머니밖에 더 돼요? 한 주머니의 공기 주머니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공기 주머니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오신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모두를 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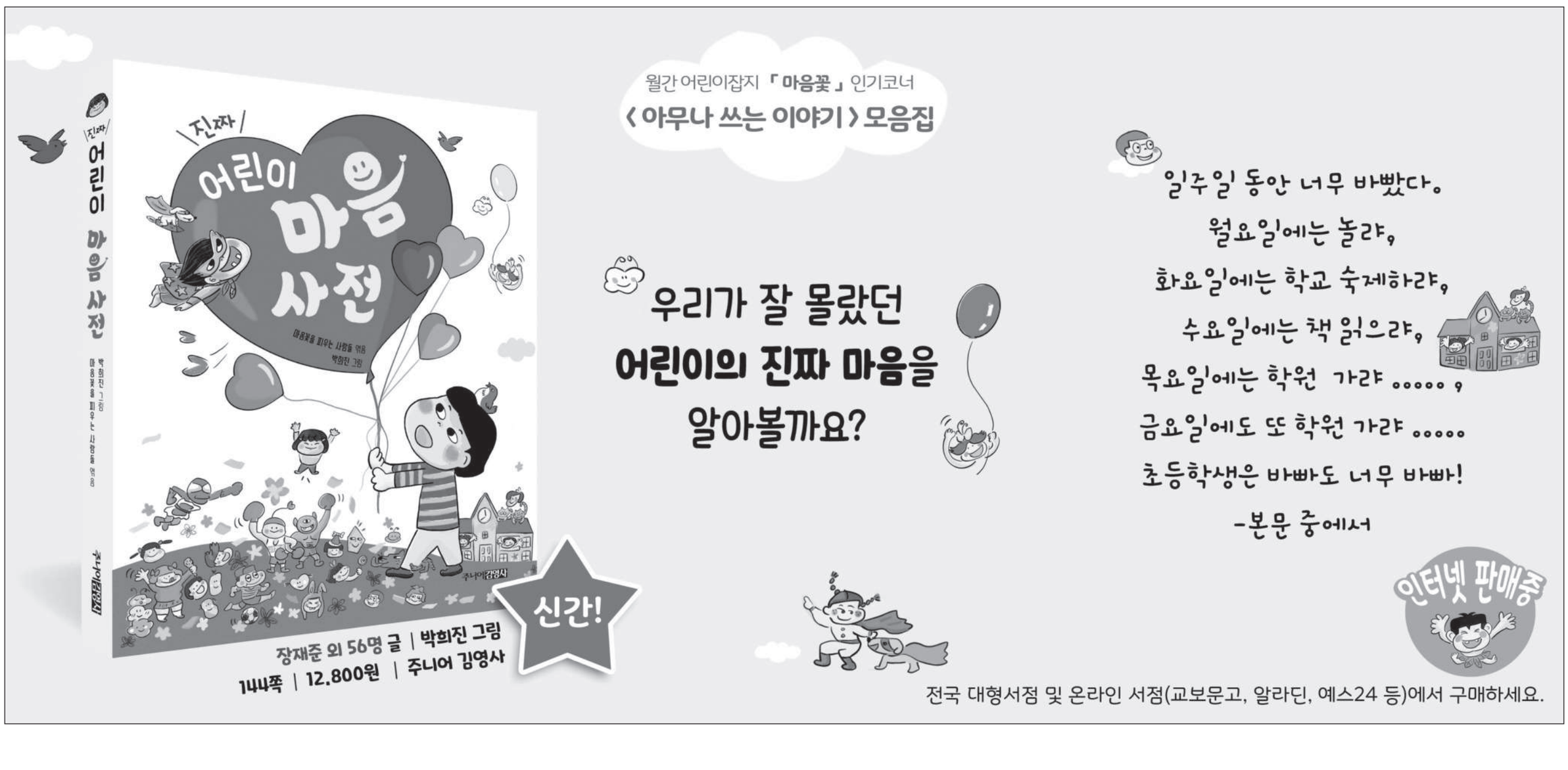
이것도 한 개체니까 만약에 지구가 버스라면, 이 몸뚱이라고 해도 되죠. 버스라면 버스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버스 안에서 우리들은 같이 백 년 천 년 살 줄 알고 그냥 악머구리 끓듯 하는 거죠. 네 거 내 거 찾고. 이 물질세계로만 자꾸 치달았기 때문이죠. 진리가 낮고 높고 중간이고 간에,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삼계가 그냥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삼계가 그냥, 그냥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삼계가 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개체 안에서 벗어나야 지구 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지구 안에서 벗어나야 전 우주로 향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알뜰하게 하는 거는 본인들이 해야지, 내 속을 그냥 펼쳐 보일 수도 없고, 허허, 참…. 어떤 땐 슬프기도 하고요. 진리가 그러하지, 뭐. 불쌍하고 모두 눈물 나고 아프고 그냥 뼈저리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모두 살 때에, 벌레도 그렇고요, 모두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그러는 걸 보면 누구의 잘못이라는 것도 없이 '그냥 진리가 뭐, 그러하지.' 이러곤 그냥 하다 보면 순간 그냥 슬퍼요.

우리 지구에만 생명들이 산다고는 생각지 마세요. 차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지구를 벗어나느냐도 문제지요. 이 몸을 벗어나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내가 모습을 어떻게 해 가지고 나오든지 자유자재로서의 자기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것도, 그것도 아주 그대로지요. 그러게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자기가 하천세계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사람도. 팔자 운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습을 어떻게 해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팔자 운명이 정해지죠, 차원에 따라서. 왜냐하면 개로 모습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개 대접밖에 못 받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그래요. 아주 못나고 가난하게 내가 받아 가지고 나온다. 그거 억지로 못하거든요. 영화배우들이 어떠한 역할을 자기가 맡았다면 그대로 거기밖에는 해당되지 않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을 해 가지고 나왔으면 그 모습으로 나온 까닭에, 자기가 그냥 닭으로 나오든 개로 나오든 돼지로 나오든 소로 나오든…. 그래서 소도 일거수일투족을 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사람에게 요만한 거 하나 버리지 않고 주지 않습

☞ 22면으로 계속



일거수일투족 닥치는 대로 다 놓아야 한다

☞ 21면에서 계속

니까. 다 바쳐서 일차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소를 조상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걸 인간에게 바치느냐, 육까지도 피까지도 바치느냐 이런 것도 있는 거지만 사람은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먹고 이렇게 살거든요. 정신을 뺏기는 율이 3분의 2는 아마 뺏기고 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살거든요. 자기 방어를 자기가 못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인공이, 그러니까 자기 몸뚱이는 보이는 거지만 안 보이는 기사가 바로 그 보이는 몸 속에 있거든요. 못났든 잘났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고 세상이 있는 거고 종교도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나로부터예요. 가톨릭교든지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막론해 놓고 주처는 자기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대 성인들이 말하기를 "야, 이놈아. 너부터 알아라. 너부터 알고 너부터 믿고, 너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너밖엔 없다. 누가 대신 똥 눠 줄 수도 없고 잠자 주지도 않고 또 먹어 주지도 않고 아파 주지도 않고 죽어 주지도 않고 깨쳐 주지도 않는다. 인간이란 홀로 와서 홀로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누가 행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자기가 행복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고 걱정 없이 사는 겁니다. 진짜로 자기를 리드하는 자기 보디가드가 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데 자기가 그대로,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아프면 약사보살이 돼 주고, 즉 말하자면 아픈 걸 관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관하면 약사보살이 돼 주고, 또 일이 안 돼서 자꾸 거기다 관하면 관세음보살로서 응신이 돼 주고, 자기가 용도에 따라서 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명이 짧아서 그렇게 관하면 칠성부처가 돼 주고, 좋은 데로 못 가서 관하면 지장보살이 돼 주고, 물에 빠져서 허덕이게 될 때에는 바로 주해신이 돼 주고, 산에 올라갔다 잘못돼서 관할 때는 바로 산신이 돼 준다. 갖은 각색으로 자기에게 닥치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의해서 용도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해결사…, 해결사라면 이름 자체가 우습지마는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그럽니다.

부처의 마음은 둥글기 때문에, 너 아님이 없고 나 아님이 없고 이렇게 모두가 둥글기 때문에, 둘이 아닌 까닭에 둥글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둥글고, 마음을 냈다 하면 법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법신, 보현신 이런 게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절에는 부처님 한 분만 딱 해 놨잖아요. 부처님 한 분이면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삼천대천세계로도 다 이게 일체제불이거든요. 일 불이란 말입니다. 일체 법이 한 법이고 한 법이 일체 법이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앞뒤가 끊어진 자리에서 지금 터덕터덕 걷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것도 고정된 게 없이 보고 듣고 하시죠, 모두. 그리고 걸음을 걸을 때에 뒷발은 점점 없어지면서 앞발은 떼어 놓지 않았으니까 없고 그냥 뛸 뿐이죠. 아주 현명하고 정당하고 적절하고, 그거는 조금도 에누리가 없는, 공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부처가 여기 있어도 여러분 대신 깨달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와 내가, 지금 현상의 나, 그게 지금 유체죠. 무심과 유체. 이 유체가 무심을 믿고 유체와 무심이 둘 아니게 콤비가 된다면, 지금도 콤비가 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본인들이 콤비가 돼서 돌아가는 걸 믿지를 않아요, 그렇게 항상 살면서도. 자기 주인공으로 인해서 자기 육체가 리드가 되고 돌아가는 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그냥 육체가 자긴 줄 알아요. 그냥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하더라도 한마음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게 참,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이, 자기를 깨달아서 자기 앞에 닥치는 대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가 체험을 하고 자기가 걸어가면서 여기 가슴에 닿는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못 하실 때가 있죠. 나도 말 못 할 때가 얼마나 많다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겉 덧갱이로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안으로 받아들인다면 아주 최고의 자유자재권을 얻는 거고요.

어느 산부인과 의사는요, 또 이런 말을 해요. 애를 많이 유산시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유산시킨 애들, 또 때에 따라서는 잘못해서 벌어진 예전 일들, 그게 인제 모두 걸리죠. 의사의 마음에 걸려서, 그리고 집안에 분란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걸려서 하루는 그 애들을 천도를 시키려면 어떻게 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단을 쳤어요. 미치광이가 되고 싶으냐고. 도깨비 같은 미치광이가 되고 싶으냐고. 남을 도와주고 의사로서 생명을 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약하게, 그렇게 모르게, 그렇게 어리석게 하고 간다면 누구 하나 의사 노릇 할 사람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허공에 영이 꽉 찬 거를 영 속에다 넣는다면 그릇이 작아서 못 담기지 않는다 이거야. 다 그냥 영이기 때문에 수만 개라도 영은 영이다 이거야, 하나의. 그러니까 내 주인공 하나면, 거기다 다 관해서 넣으면 그냥,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뭣 때문에 그렇게 그러느냐. 그러한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뭘 하나 죽여도 살생이 되지만 이렇게 배우고 아는 사람들은 살생이 되는 게 아니라 진화시키는 과정이다 이거야.

그래서 오히려 재생을 시켜서 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고기를 죽인다 이러더라도…, 그냥 무턱대 놓고 죽이는 거 말고요,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할 땐 관하고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어떤 중이 자기 스승이 죽게 됐더래요. 그래서 지렁이를 한 바가지씩 갖다가 소금에다 넣어서 흘러가는 물에 말갛게 씻어서 고아 가지고 쪽 짜고서 찌꺼기는 묻어 버리고 스승에게 먹이니까 딴 제자들이 말하기를 "너는 지옥밖에는 못 가겠다. 그렇게 살생을 많이 하고 어떻게 지옥을 안 가겠느냐."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지옥을 가도 내가 가는데 네가 무슨 참섭이냐. 은사를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간다면 구더기로 태어나도 나는 하등 상관이 없다, 내 스승님만 살릴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도 그거지만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내 몸도 지렁이고 지렁이도 내 몸인데 지렁이를 만 개를 죽였으면 만 개가 한데 합쳐서 한 영이 될 때 바로 재생이 돼서 인간으로 환토를 할 거야. 그래도 내가 살생을 했느냐."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꼼짝 못 했대요.

그래서 은사는 은사대로 살리고요. 그 은사는 뭔지도 모르고 "애야, 구수하다." 허허허…. 이 땅 끝에서 허리도 일으키지 못하던 사람이 "아이고, 그게 무슨 물인데 그러느냐." 그러기에 "저 산에서 자라는 뿌리입니다. 그걸 고았더니만 그렇습니다." 그랬대요. 그렇게 갖다 먹여서 건강하게 해 놓고선 그 참, 보이지 않는 부처님한테 칭찬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선자야, 선녀야! 참 착하고 착하구나!'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제일 첫째다 이거야, 융통성이. 곧이곧대로 하다가는, 때에 따라서 형제들이 많다면 이쪽 형제가 "으이그, 저 형님은 뭐 어쩌고 어쩌고…." 욕을 했을 때 고대로 갖다가 일러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쪽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 저쪽에 가서는 "아, 이렇게 이렇게 형님을 칭찬을 합디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 그러면 이쪽에 와서 그러고, 이래야 이게 화목이 이루어지고 '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쟤는 그렇게 생각했다니 내가 참 미안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질 텐데 그대로다가 옮기면 그냥 살인 나죠. 의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융통성 있게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니라 이거야. 지혜이니라.

지금 경중경중 뛰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하하…. 그러니까 진짜 믿고요, 진짜 시도하세요, 그냥. 자기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뚱이가 나왔으니까 내가, 몸뚱이가 지금 리드가 된다는 얘기죠. 자기 영혼의 근본이 없으면 이 몸뚱이가 움죽거리지도 못해요. 송장이 되죠, 그냥.

부인은 남편한테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을 하고
남편한테 탓을 하고 원망하지 말고,
남편도 부인에게 그러고,
그렇게 잘했든 못했든 내 탓으로 생각하라.

어느 때 한번 가다 보니까 사람 죽은 걸 봤는데요, 산에서 굴러서 죽은 건지 뭔지 모르죠. 그랬는데 글쎄, 그 영령이 그걸 알면 착이 없이 훌훌 그냥 떠날 텐데 말이에요, 자기 집이라고 착을 갖고 거기 웅크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내 집이라고요. 산산조각이 났는데. 이게 사고가 나서 오래되면 그 영이 빠져나가질 못하죠, 대신 누구를 갖다 놓질 못하면.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기가 그냥 사고가 맨날 난다고 그렇게 어느 신도가 말하던데 그것만, 영만 저거 하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중생도 보이는 중생도, 중생이라는 건 이 중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허리띠 매고. 그러니까 이 중세계에 사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이 50%라면 보이는 것도 50%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보이는 여러분이나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나 똑같이 생각합니다. 측은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끝 안 나고 영원히 이렇게 돌아갈 거다' 이럴 땐 씁쓰름하고 슬프고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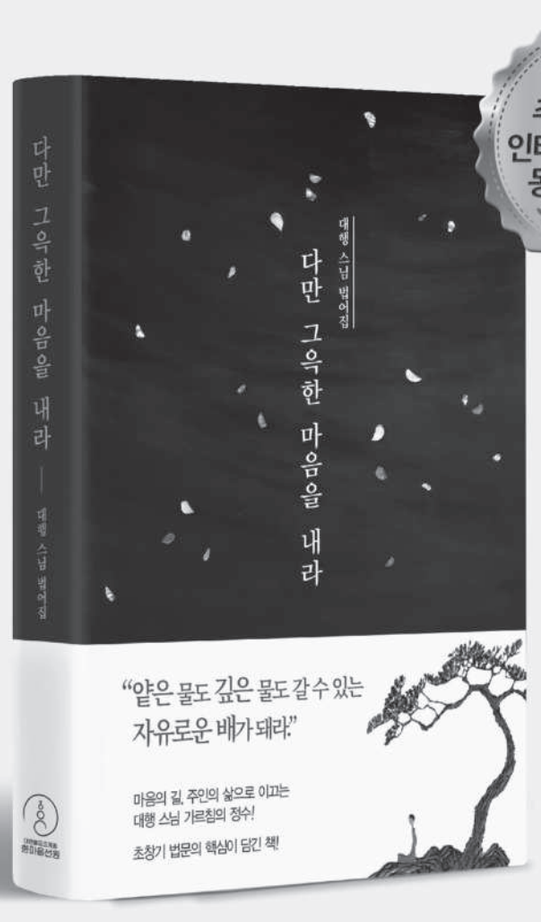
화성처럼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화성에도 사람이 살던 데인데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명이 또 살아나고 있지만 말이에요. 이 무심의 종자를 갖다 넣으면 또 종자에서 싹이 나거든요. 그건 이런 공부 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요량도 큰 지혜거든요. 이게 똑같이 주인공을, 이름을 알아도 요량이 문제예요. 우리가 반찬을 해도, 똑같은 음식 가지고도 맛있게 하는 사람 있고 맛이 없게 그냥 하는 사람 있죠, 간도 안 맞게 하고. 그러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 자기 싹이 자기 뿌리를 믿으라는데 왜들 그렇게 그러는지 몰라요. 누구 딴 사람을 믿으래야 억울하다든가 난 믿지 못한다든가 이러지,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영혼의 근본을 믿으라는데, 자기 주장자, 중심을 믿으라는데 어찌 안 믿어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가서 빌라면 그거는 뭐, 천지가 망해도 빌고 그러거든요. 아, 나 참! 그게 도깨비장난과 같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부터 알아라. 도깨비장난 하지 말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서산 대사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다 하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새가 된 거죠. 새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어째 안 내려와지겠습니까. 만일에 지금 비행기를 운전하고 가는 운전수가 예전의 서산 대사처럼 그렇게 서산 대사가 됐다면, 그 서산 대사가 '아휴, 땅으로 떨어져야겠다.' 그러면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체가 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영령들이나 보이는 사람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부인은 남편한테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을 하고, 남편한테로 그 탓을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또 남편도 부인에게 그러고, 그렇게 내 탓으로 생각하고 잘했든 못했든 내 탓으로 생각해라. 잘했으면 '감사하구나.' 하고 잘 안될 것 같으면 '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하고 놓고, 분이 나걸랑 '왜 분이 나게 하니? 분이 안 나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다 닥치는 대로 여기다가, 그게 그놈이 하는 거니까 다 놓아야죠. 자기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가고 오게 하고 만나게 하는 게 전부 그놈이 하는 거지, 그놈 빼놓고 자기 껍데기가, 송장이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대로 고놈이 하는 줄 알고 믿어라 이거야. 믿고 해라 이거야. 믿지 않으면 통하지 않아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7년 4월 12일 일반 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현불 논단 |

‘Contact’ 연등회, 다시 불 밝히는 희망



주석 스님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이사장

고려 태조 ‘훈요십조’ 중 연등회 언급
국가적 행사 자리잡은 점 알 수 있어

전 시대 걸친 백성들의 마음 등불
2020년 유네스코 등재로 세계 인정

올해 대규모 연등회 행사 기획 기대
코로나 지친 국민에 위안 · 평화 주길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 첫 번째와 여섯 번째는 대략 이렇게 정리된다.

“국가의 대업이 제불(諸佛)의 호위와 지덕(地德)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이며, 연등회, 팔관회 등의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말아야 한다.”

열 가지 유훈(十訓) 중 불교와 관련된 조항이 두 가지나 있다는 것은 고려 태조의 사상 배경과 그 당시 정책의 요체가 불교에 집약돼 있음을 짐작케 한다.

연등회는 부처님오신날인 음력 4월 8일에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거행되는 불교 행사로, 삼국시대로 그 연원이 올라갈 정도로 1000년 동안 계승된 불교 의례다.

연등회는 신라 진흥왕 12년(551년)에 팔관회의 개설과 함께 시작됐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경문왕 6년(866년)과 진성여왕 4년(890년)에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았다(看燈)’라는 기록이 전해져 오랜 시간 한반도에서 거행된 행사임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 시작된 국가적인 불교행사는 고려시대로 이어지면서 융성해졌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로 오면서 쇠퇴하지만, 그래도 민간에서는 등을 밝히며 연등회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갔다. 백성들의 마음의 등불이었기에 근현대기에서도 명맥은 이어졌다. 현대 연등행사의 시작은 1955년 조계사 부근에서 제등행렬이었으며,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공휴일로 제정되면서 연등회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됐다.

2012년 연등회는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으며, 2020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불자와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인이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2020년 창궐한 코로나19라는 역병으로 인해 연등회는 암초를 만났다. 2020~2021년 불교계는 봉축행사의 백미인 연등회를 취소했다. 1000여 년 역사 속에서 연등회 행사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계엄령으로 행렬이 진행이 진행되지 못한 이후 40년 만이었다. 1961년 4.19 계엄령과 1970년 계엄 상황 등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연등회가 진행되지 않았던 적은 있지만, 자발적인 취소 결정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지난 2년동안 흥겨운 연희단의 군무도, 서울 밤거리를 수놓는 화려한 장엄등의 행렬도, 회향한마당의 꽃비도 만날 수 없었다. 하지만, ‘자리이타(自利利他)’라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구현했다는 데 의미가 컸다. 중생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대승불교의 가치가 당시 불교계의 결정에는 담겨있었다.

그렇게 두 번의 연등회가 취소 · 축소됐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됐으며 정부 역시 ‘일상회복’을 강조하면서 ‘리오프닝(re-opening)’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는 불교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등회보존회는 최근 공식홈페이지에 올해부처님오신날 연등회 봉행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연등회를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준하는 규모의 대면 행사로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도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면서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다시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 보는 것에 초점을 삼고 있다. 부산에서도 부산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 연등회도 3km 거리의 연등행렬을 준비중이다.

올해 연등회 표어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다. 3년 만에 다시 재개하는 연등회가 지친 국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의 등불로 다가가길 기대한다.

社 說

성파 종정예하 추대에 부쳐

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3월 30일 2000만 불자의 마음을 받아 추대됐다. 조계종 최고 정신적 지도자이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으로 중봉 성파 대종사는 불법(佛法)을 밝힌다.

새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그동안 생활과 문화, 선을 함께 잇는 수행가풍을 펼쳐왔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불교로의 변화를 스스로 상징하는 스님이다. 추대법회에서 준비된 법문을 걷어치우고 대중들에게 설법한 중봉 성파 대종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낸다.

코로나로, 전쟁으로 지구촌과 대한민국은 시름을 앓고 있다.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자비의 손길이 더욱 필요할 때다.

인자한 모습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중봉 성파 대종사의 모습은 그 자체로 대자대비보살의 화현이다. 형형한 눈빛과 함께 우레와 같은 사자후로 수행자의 결기를 드러내는 모습은 선의 종장 그 자체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식이 그러했지만 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여느 선지식과 다른 면이 있다. 스스로 낮추길 꺼리지 않는 중봉 성파 대종사는 흙을 만지고 종이를 만지며 평생을 정진해왔다.

환한 얼굴로 남을 대하고, 사랑과 칭찬의 말로 위로하며, 따뜻한 눈길과 언행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 또 스스로 하심하여 보람된 일을 하며 상석을 즐기지 않고 양보하는 그런 무재칠시를 평생 행해온 중봉 성파 대종사. 이제 중생의 평안을 위해 나선 중봉 성파 대종사의 또 다른 정진이 국민들과 지구촌 세계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이다.

B톡, 불자경제공동체 첫 발 ‘기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3월 31일 불자 전용 메신저 B톡을 출시하고 불자를 하나로 모으는 디지털 정보화 사업을 선언했다.

불자기업인 비드테크와 시스템 구축 협약을 맺은지 8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비톡은 메신저 기능 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웹과 앱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게 하고, 멤버십을 디지털화, 각종 할인 혜택과 소통 가능으로 활동을 이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불자장터를 비롯한 상부상조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불자들이 불자기업을 활용하면, 기업 측에서는 고객이 확보되며, 불자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인구직활동에 도움을 주는 인적정보 공유 등도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불교계는 이웃종교에 비하여 공동체 형성이 안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 이면에는 경제적으로 상부상조하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불심이 강한 부산의 경우 신협 등을 통해 불자들의 경제활동을 서로 지원하여 경제공동체를 함께 일구어 다시 불심 강화의 선순환 고리로 만들고 있다. 이웃종교계도 마찬가지다. 사업을 하면 교회를 다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경제는 발전하고 종교는 그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주문받고 있다. 불자들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세 확장과 외호 강화를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 측면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비톡 출시는 단순히 메신저 출시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경제 네트워크 구축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부처님 재세시 신흥기업가들이 인도 계급사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상이었던 불교에 귀의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강력한 후원자로 나섰다. 이를 선례로 새로운 불가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길 기대해본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봄바람’나고 싶어라

도봉산(道峰山)을 오른다. 만장봉(萬丈峰), 자운봉(慈雲峰), 선인봉(仙人峰), 도(道)의 봉우리들이 솟아오른 산을 오른다. 가파른 산길을 걷고 걷는다. 온몸의 구멍마다 오액(五液)이 흐르고 숨결이 거칠다. 잠시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른다. 바람이 불어온다. 봄바람이 거친 숨결을 토닥이며 흩어진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 딱히 머무른 바 없는 바람. 탐진치(貪瞋癡)를 해체하고 만법귀일(萬法歸一) 한 바람이다.

아, 나도 바람이 되고 싶어라. 새바람 높새바람 하늬바람이 되고 싶어라. 산바람을 타고 우주를 나들이하는 풍류체(風流體)가 되고 싶어라.

술 잘 먹고 노래 잘 부르는 한량이 풍류객인가. 아서라, 신라의 고운(孤雲) 최치원은 〈난랑비서(鸞郎碑序)〉에 “나라에 현묘(玄妙)한 도가 있으니 일컬어 풍류(風流)라 한다. 그 풍류의 연원은 선사(仙史)에 상세히 적혀있다”라고 기록했다.

고운이 쓴 〈난랑비서〉의 난랑(鸞郎)이란 무엇일까? 난랑의 난(鸞)은 봉황(鳳凰)의 이름이다. 봉황은 실제로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상상 속 높은 경지에서 노니는 영조(靈鳥)다. 또한 봉황의 봉(鳳) 자는 바람 풍(風)과 새 조(鳥)의 합성어가 아닌가. 봉황은 풍조(風鳥), 바람새를 일컫는다. 고운은 인간이 신령한 산바람(嵐)을 타고 영원한 우주 차원으로 선화(仙化)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현묘지도(玄妙之道)를 풍류도(風流道)라 했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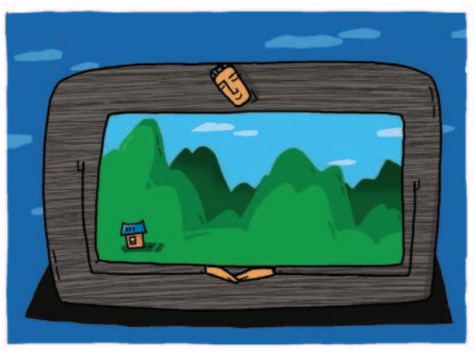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증산(甑山)은 “세상에 성(姓)으로 풍(風)씨가 먼저 태어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사람의 몸에 들어 다만 풍신(風身), 풍채(風采), 풍골(風骨) 등 체상의 호칭으로만 남았다”라고 했다. 풍씨를 인간 근원의 성으로 해석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풍류의 멋은 풍월을 농하는 것이 아니라 신묘한 바람을 타고 생사(生死)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무애한 숨길이다. 풍류체는 지구에 화려한 무덤을 남기고 피안으로 떠나지 않는다. 고운은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않고 가야산에서 산바람을 타고 흔적 없이 우화(羽化)했다. 지구라는 좁은 마당에서 자유로운 바람을 타고 광대무변한 하늘로 영화(靈化)했다. 단군 역시 하늘을 개천한 후 시체를 남기지 않고 승천했다.

땅과 하늘을 넘나드는 풍류체는 형체가 없으면서도 무한한 형체를 갖춘 무애자재(無礙自在)한 모습으로 성차원(聖次元)을 소요한다.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을 마음에 새겨 바람처럼 흘러가는 절대자유한 지경이런가.

바람이 분다. 봄바람이 부는 도봉산에서 바람나고 싶어라.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대표이사 : 혜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2019년10월31일(목요일) KBS1 저녁7시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 2022년2월16일(수요일) KBS1 저녁6시 내고향 지리산 함양 해발1000m 자생「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밀림사
• 주 지 : 지웅 (속명 : 강재규)
• 주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하림1길 121-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6일
대한불교 능인종 총무원장 법하

2022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

검색창에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검색하세요

2022. 4. 7(목) ~ 10(일)
대구 EXCO(엑스코) 서관 1홀
공식홈페이지 www.bexpodg.kr

주요 프로그램

주 제 전	- 전통문화와 일상을 잇는 대구 무형문화재 장인 특별 전시
문화·산업전	- 도자, 금속, 옻칠, 목공 등 신라부터 현대까지 이어져온 불교공예전 - 불상, 불화, 단청 등 전통 불교미술 및 현대미술 작가들이 참여하는 불교예술전 - 차, 수행의식, 문화산업 등 일상생활에 자리잡은 불교문화전
기 획 전	- 대구경북 각 지자체의 문화콘텐츠를 선보이는 지자체특별전 - 해외 불교문화를 만나는 해외교류전
특 별 전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 홍보 - 사찰 음식 특별전 - '본디나' 불교문화상품 특별전시
부대프로그램	- 연꽃무드등만들기, 전통문양 블록체험 등 불교 및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 삶의 지혜를 주시는 유명 스님들의 법문으로 진행되는 무대 프로그램

주 최 불교신문 BBS불교방송
후 원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불교종연합회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해인사 고운사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협 력 (사)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 (사) 대한민국명인회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사)한국차인연합회

2022대한민국 불교문화엑스포사무국
대구사무국 : 053-427-5114
엑스포사무국 : 02-2231-2013
bexpo@daum.net

무료사전등록 바로가기QR코드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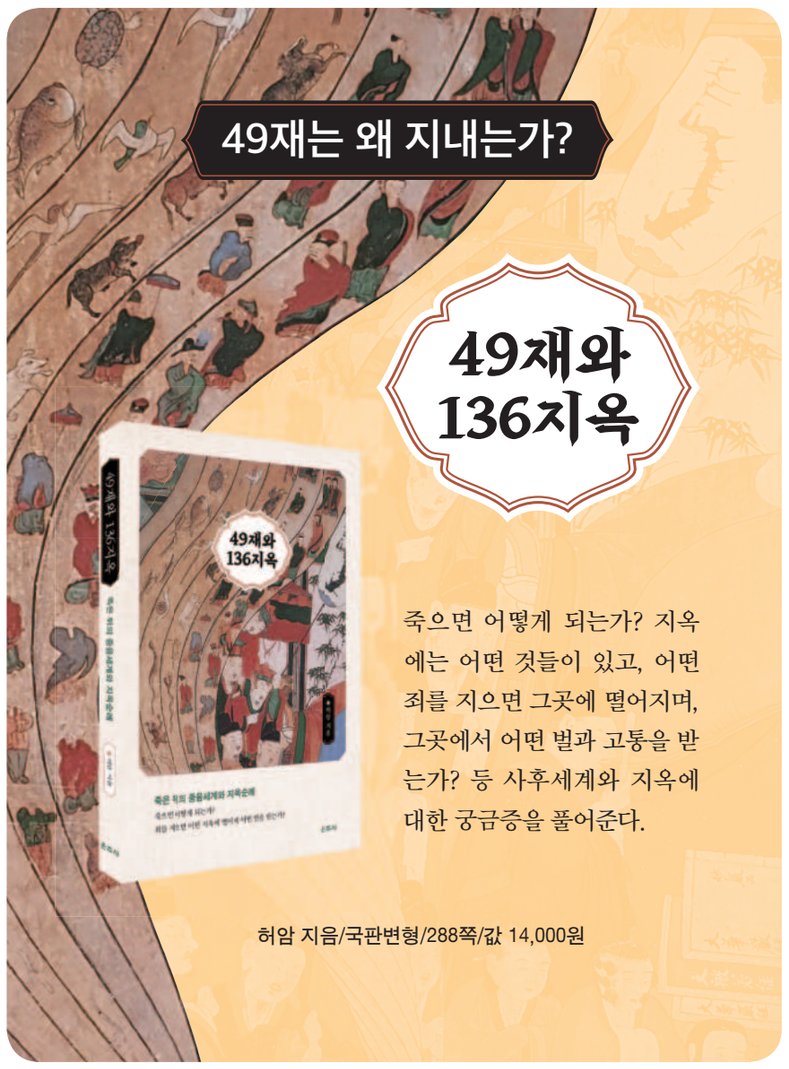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옥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죄를 지으면 그곳에 떨어지며, 그곳에서 어떤 벌과 고통을 받는가? 등 사후세계와 지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허암 지음/국판변형/288쪽/값 14,000원

천수경은 기도와 수행의 경전이다!



천수경 제대로 공부하기

천수경은 팔만대장경을 압축하여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경전이다. 천수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불교공부이자 수행이다.

최세창 지음/신국판/292쪽/값 14,800원

명상이 가져다 준 선물



명상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불안,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 평온, 행복한 삶으로의 전환을 가져다 준 명상! 일상의 삶 속에서 명상을 통해 삶의 주인이 된 저자의 마음공부와 명상 경험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조치영 지음/국판변형/184쪽/값 11,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